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강해

AN EXPOSITION ON THE
APOSTLE PAUL'S EPISTLES
TO TIMOTHY AND TO TITUS

[1판-수정중]

김효성

Hyo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faith

2021

머리말

주 예수 그리스도(마 5:18; 요 10:35)와 사도 바울(갈 3:6; 딤후 3:16)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진술된 대로(1:8),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고 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경의 헬라어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본문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 원본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으로 여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다.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기독교 신앙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 해석과 강해는 복잡하고 화려한 말잔치보다 성경 본문의 바른 뜻을 간단 명료하게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경 주석이나 강해는 성경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한 작은 참고서에 불과하다. 성도는 각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주석과 강해는 오직 참고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내용 목차

디모데전서

서론	5
1장: 바른 교훈	6
2장: 기도와 선행	18
3장: 감독과 집사의 자격	28
4장: 목사의 자기 훈련	41
5장: 과부와 장로에 대한 교훈	51
6장: 자족하는 생활	61

디모데후서

서론	5
1장: 진리 보수	6
2장: 좋은 일꾼	16
3장: 고통하는 시대, 성경의 유익	31
4장: 설교자의 직무	42

빌레몬서

서론	5
1장: 장로의 자격	6
2장: 바른 교훈에 합한 삶	18
3장: 선행	27

디모데전서

서론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1:1).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본서를 바울의 글로 인용하였다(*Stromata*, 2. 11; 3. 6). 티툴리안도 본서를 인용하면서 바울의 진술이라고 말하였다(*On Prescription against Heresies*, 25).

본 서신의 **저작 연대**는 주후 65년경일 것이다. 만일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어 에베소 부근에서 약 1년간 일하고 그 후 서바나에서 약 2년간 일하였다면, 그는 마케도냐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에서 본 서신을 썼을 것이다(딤후 1:3).

디모데전서의 **특징적 주제**는 목회 교훈이다.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목회서신’으로 불린다. 그것은 이 서신들이 일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들은 특히 이 서신들을 자세히 읽고 연구함으로써 좋은 일꾼, 충실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서신들은 목회자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많은 진리와 교훈을 준다.

디모데전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장, 다른 교훈을 경계함
- 2장, 기도, 여성의 단장과 역할 제한
- 3장, 감독과 집사의 자격
- 4장, 목사의 자기 훈련
- 5장, 과부와 장로에 대한 일들
- 6장, 자족하는 생활

1장: 다른 교훈을 경계함

1-11절, 다른 교훈을 경계함

[1-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는 이사를 통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사 43:11).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지만,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도 구주이시다.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참 구주가 없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이나 세상 권세는 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편 146:3-4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라고 말했고, 에스겔 7:19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죽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라고 말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과 세상의 근본적 문제는 죄 문제이며 사람은 죄의 결과로 온갖 불행한 일들과 사망과 지옥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죄와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그 어떤 이도 우리를 죄와 불행에서 건져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렀다. 예수께서 우리 소망이신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확실히 증거하신 후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악인들은 공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지울 것이나, 의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골 1:28)이시며 ‘복스러운 소망’이시다(딤후 2:13).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 예수께만 두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나 재물이나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인생은 짧고 세월은 빨리 흘러간다. 누구에게나 늙고 병들고 쇠약한 시간이 곧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였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다. ‘사도’는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인데(롬 1:1) 하나님께서 ‘너는 사도가 되어라’고 명령하시자 그는 곧 순종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처럼(사 6:8),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니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른 것처럼(마 4:19-20), 바울도 그를 사도로 부르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의 수신자인 디모테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테”라고 말하였다. 성도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엡 2:8). 디모테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참 아들이었다. 그것은 디모테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든지, 혹은 믿음 안에서 아들로 여겨졌다는 뜻일 것이다. 육신적인 아들보다 영적인 아들은 더 귀하다. 육신적 가족 관계보다 영적 가족관계는 더 귀하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막 3:33, 35). 교회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영적 가족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날마다 부족과 실수를 씻음 받고 신앙생활하며 조금씩 조금씩 성화(聖化)를 이루어 간다. ‘평안’은 죄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며 또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환경적 평안도 포함한다.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이며 우리 모두가 항상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바이다.

[3-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오이코노미아 οἰκονομία)[경영, 섭리, 뜻]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테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목적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 함이었다. 교사로 자처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했던 그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다른 교훈은 금지되어야 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훈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참 교회의 표는 바른 교훈에 있다.

교회는 교훈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통일성을 말한다. 그것은 2천년 교회역사의 정통적 흐름과의 일치이다. 바른 교훈의 기준은 성경이다. 신구약성경만 신앙과 행위에 유일한 규범이다. 물론, 성경이 유일한 규범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의 주관적 해석을 버리고 객관성 있는 바른 해석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신화나 족보 이야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신화는 사실이 아닌 것, 즉 지어낸 이야기를 말한다. 성경은 역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의 말씀들이다. 그것은 신화나 허구가 아니고 사실들이다. 족보는 육신적 혈통을 말한다. 그것이 귀한 유산일 경우도 있으나, 진리의 보존을 보장하지 못한다. 육신적 족보로 말하면 천주교회가 사도들의 후에 일지 모르지만, 진리 사상으로 말하면 천주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이탈하였고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육신적 족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의 계대(繼代)이다. 사실상, 육신적 족보는 헛되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사도적 교훈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참 계승자이다.

사도 바울은 신화나 족보 이야기 같은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이란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뜻을 가리킨다. 그 뜻이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진행됨을 말한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성화되어 간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 얻은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고 온전한 성화에 이르는 것이다. 참된 교훈은 우리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한다. 그러나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 신화와 족보에 착념하는 자들은 믿음에 유익을 주지 않고 변론만 일으키는 자들이다. 변론은 말만 무성한 것을 말한다. 그런 변론은 믿음에 아무 유익이 없고 참된 믿음의 성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5-7절] 경계(파랑겔리아 παραγγελία)[명령,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경계의 목적’ 즉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청결한 마음이란 회개하고 죄를 씻음 받은 마음을 가리킨다. 죄가 우리 마음을 더럽혔고 지금도 더럽힌다. 그러나 회개와 죄씻음을 통해 마음이 깨끗함을 얻었고 또 계속 씻음 받음으로 깨끗함을 유지한다. 선한 양심이란 바른 도덕적 분별력을 가리킨다. 양심은 죄로 더러워져서는 안 되며 진실한 순종 생활로 선하게 간직되어야 한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모양만이 아니고 작을지라도 진실하게 믿기 시작한 믿음을 가리킨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참 사랑이 나온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함이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이웃사랑은 도덕법의 완성이다. 구원 얻은 자의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설교와 교훈의 목표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헛된 말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바른 말에서 떠나 헛된 말들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고 잘못된 교사들이었다. 참된 믿음과 사랑을 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아니다.

[8-11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범 있게 쓰면[정당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범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베벨로스 βέβηλος)[속된](profane)(KJV, NASB) 자며 아비를 치는 자(파트롤로아스 πατρολόωσ) [아비를 죽이는 자](patricide)와 어미를 치는 자(메트롤로아스 μητρολόωσ)[어미를 죽

이는 자(matricide)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동성애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인신매매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건전한) 교훈을 거스리는(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좃음이니라.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 저 율법교사들처럼 오류에 빠질 수 있지만, 율법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 의도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복음 진리에 맞게 적용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유익을 줄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의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위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롬 3:20). 바울은 열다섯 가지의 죄악의 목록을 열거한다: 불법한 자 즉 율법을 거스려 행하는 자, 복종치 않는 자 즉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즉 세속적인 자, 아비를 죽이는 자와 어미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동성애자, 인신매매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죄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바른 교훈 곧 건전한 교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이다. 그러나 불건전한 율법 선생들이 나타나 다른 교훈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였다. 그러나 율법을 복음과 충돌되게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 율법은 의의 표준으로서 또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서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직접적 수단이거나 성화의 효력 있는 수단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

도의 완전한 십자가 의를 통해 왔고 우리의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성취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조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섬긴다(롬 7:6; 8:4, 13-14).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구원의 목표가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광의 부활과 천국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구해야 한다. 2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을 얻었으며 평안을 얻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견고함과 성화를 이루며 고난과 수고의 세상 현실에서 낙심치 않고 평안을 유지한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교훈을 조심해야 한다(3절). 바른 교훈은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 진리의 교훈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으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의 교훈이다. 다른 교훈은 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문제 같은 것으로 변론하는 것이다. 신학적 토론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바른 교훈 안에서 경건과 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5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구원 얻은 신약성도들에게도 경건과 의와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특히 율법을 잘못 사용하지 말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생활의 바른 지침이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이고, 반율법주의는 도덕법이 여전히 성도가 지켜야 할 생활 규칙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이다.

12-20절, 감사와 찬송과 당부

[12-14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횡방자요 꺾박자요 포행자(暴行者)[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불신앙 중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비방하고 꺾박하고 폭행했던 자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꺾박하고 폭행했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불신앙 중에 무지함으로 그런 악을 행하였었다. 비록 그 죄악이 심히 컸지만, 구주 예수께서는 죄인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주의 긍휼과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주셨다. 구원의 은혜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주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죄인 바울이 구원을 얻었고 사도의 직분까지 받았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는 비록 무지함으로 믿는 이들을 꺾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졌었다. 주께서는 충성된 마음을 좋게 여기시는 것 같다. 주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신 후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다. 우리는 맡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충성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은 자기의 직분과 직무를 잘 이해하고 겸손히 충성하는 것이다.

[15절] 미쁘대미를 만하도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파세스 아포도케스 악시오스 πάσης ἀποδοχῆς ἄξιος)[전적으로 받을 만한(KJV, NASB, NIV) 이 말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우두머리]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

다는 소식이 신실한 말씀이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세상에 참으로 복된 소식이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유대인 청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곧 구주 이심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신적인 구주를 약속하였다(사 9:6; 미 5:2). 바로 그 약속된 신적 구주께서 오신 것이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사 53:5) 그들을 위해 그 몸이 찢리시고 상하시는 고난을 받으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었다.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만, 특히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는 죄 중에도 큰 죄이다.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매우 큰 죄악이다.

[16절] 그러나 내가 공황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이 때문에 공황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때문에’라는 말은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라는 뜻 같다. 구주 예수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께서 그에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죄인들의 괴수 같은 큰 죄인이 주의 공황을 입어 구원 얻었으므로, 이제 어떤 죄인이라도 주의 공황을 입을 수 있음이 증거되었다. 어떤 크고 심각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주 예수께로 나와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17절] 만세의[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전통사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자 곧 통치자이시다. 죄인들을 구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그는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는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는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그는 썩지 않으신다. 모든 피조물은 다 죽고 썩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또 보이지 않으신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다. 그는 모든 존재 세계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홀로 하나이시다.’ 세상에는 한 하나님께서 계신다.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이며 헛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된 우상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열거한 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하였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네게 주었던 예언들을 따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너는 그것들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KJV, NASB, NIV).

‘그것들로’라는 말은 그가 전에 그에게 주었던 예언들이라는 뜻이다. ‘예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교훈들을 말한다. ‘선한 싸움’은 믿음과 진리와 의를 위한 싸움이며 교회를 위한 싸움이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악성(갈 5:17)은 성령의 생각과 대립되며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이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들과도 싸운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도 당한다(요 16:33; 딤후 3:12). 더욱이, 사탄과 악령들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대적한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에베소서 6:17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검이다. 주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구약성경을 인용하심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셨다(마 4:4, 7, 10).

[19-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훼방하지 말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한다.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그 싸움에 지면 믿음을 잃고 불신앙과 죄에 떨어진다. 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것은 개인적 배교와 변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속죄 신앙, 복음 신앙, 성경적 신앙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양심이 무디어 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성경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써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영적 싸움에서의 실패자들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인신 공격이 아니다. 이미 시행된 권징을 알리며 우리에게 그것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제명 출교를 가리킨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이지만, 교회 밖은 사단이 활개치는 사탄의 세계이다. 요한일서 5:19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고 말했다.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사도의 권위를 보이며 권징을 집행한 자가 그 자신임을 증거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목사나 당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주신 영적 권위를 소유하고 있고 이 권위를 가지고 권징을 시행한다.

권징의 목적은 그들로 비난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 ‘징계를 받는다’는 원어(파이뉘도시 *παιδεύωσι*)는 영어성경들의 번역대로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다(KJV, NASB, NIV). 그들은 진리를 비방하고 참된 믿음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도 비난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좁은 길보다 포용주의

를 좋아하고 타협적인 길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제명 출교의 권징을 통해 비난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다.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만세의 왕, 영원하신 왕, 곧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철학자들과 같다. 철학은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삶의 의미, 죽음과 그 너머 등에 대해 질문하지만, 참된 대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 그런 물음들에 대해 대답을 얻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구주이시다. 15절, “믿을 만하도다, 전적으로 받을 만한 이 말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니라.” 구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의 괴수 바울을 구원하셨다. 그는 그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것이다. 또 그는 핍박자 사울을 불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오늘 우리도 그의 긍휼과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셋째로, 우리는 영적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8-19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네게 주었던 예언들을 따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너는 그것들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는 믿음에서 떠난 배교와 변절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의 풍조와 싸워 이겨야 한다.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잘 지켜야 한다. 특히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말씀 묵상과 기도으로써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2장: 기도와 선행

1-8절, 기도에 대한 교훈

[1-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禱告)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기에서 앞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에 연결되는 것 같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기도의 여러 측면들을 표현한다. 특히 ‘도고’라는 원어(엔투크시스 εἰτευξις)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뜻을 가진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즉 오늘날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 등을 위해,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바른 직무 수행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고 하셨다(렘 29:7). 사람이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경제만 성장하면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경건과 도덕성이 중요하다.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어 새 사람이 될 때, 그들을 통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정치, 의롭고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때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3-4절] [이느]전통사본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것임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구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신다. 사람이 외모로 남을 판단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판단하시되, 그 가운데서 그의 주권적 긍휼에 따라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를 증거한다. 에스겔 33:11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아니다.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제한적이다. 그는 만세 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 그 선택된 수는 확실하고 고정되어 있고 불변적이다. 그는 그들만 구원하기를 뜻하시며 또 그들만 구원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6:39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5절] [이느]¹⁾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예수이심이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

1) Byz it vg syr 등에 있음.

는 진리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밝히 계시된 진리이다(출 20:3; 신 6:4; 사 43:10-11; 44:24; 46:9; 고전 8:6; 엡 4:6).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다. 주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14:6), 또 사도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하였다(행 4:12).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贖錢)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증거될 것이었도대.

‘속전(贖錢)’이라는 원어(안티뤼트론 ἀντιλυτρον)는 ‘대속물’과 같은 뜻으로 짓값을 의미한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토 말뫼리온 카이로이스 이디오이스 τὸ μαρτύριον καιροῖς ἰδίους)는 원문은 ‘정한 때에 증거될 것이었다’라는 뜻이다. 그 정한 때는 예수께서 오시는 때 곧 신약시대를 가리킨다. 구약시대에는 이 사실이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암시적으로 증거되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실체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짓값을 실제로 지불하셨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贖錢)으로 주셨다는 표현에 대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께서는 택한 자들의 짓값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속전(贖錢)으로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경의 명확한 진리들과 충돌되는 생각이다. 성경은 선택과 예정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때문이다(요 6:39, 44; 롬 9:10-18; 엡 1:4-5, 11). 선택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제한성을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택한 자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면, 이제 악인들을 위한 지옥 형벌이 남아 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결국 다 구원 얻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성경 진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영생에 이를 자들이 적으며,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7:13-14).

그러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贖錢)으로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은 대략적, 제한적 의미로 본다. 우리의 일상적 표현에서 ‘모든’은 항상 완전한 의미에서 ‘모든’이 아니라, 대략적, 제한적 의미의 ‘모든’일 경우가 많다. 예배가 끝난 후 교우들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을 때, 우리는 다 돌아갔다고 표현한다. 또 물병에 물이 조금 남았을 때 우리는 물을 다 마셨다고 표현한다. 디모데전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사용한 ‘모든’이라는 말은 완전한 의미가 아니고 대략적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1의 ‘모든 사람’도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 어렵다. 4절의 ‘모든 사람’도 대략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4:15이나 5:20과 디모데후서 1:15의 ‘모든 사람’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대략적, 제한적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속전(贖錢)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 오직 그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속전(贖錢)이 되셨다는 복음 진리를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본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진리이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전파하

는 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 ‘전파하는 자’라는 말은 선포자, 설교자라는 뜻이다. 그는 특히 이방인들을 위해 이 진리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죄를 품고 기도하면(사 1:15; 59:2)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또 우리는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온 백성을 위해, 또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얻기를 원하신다(4절). 이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이다. 그러나 그는 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이시다. 5절, “하나님께서서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얻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속전(贖錢)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죄인들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주이시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1절). 우리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모든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온 백성을 위해 또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9-15절, 여자들에 대한 교훈

[9-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코스미오스 κόσμιος)[단정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바른 정신, 절제]로 자기를 단장하고 땡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성도는 단정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절제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 단정한 옷은 음란하거나 혹은 호화로운 복장과 대조된다. ‘염치’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뻔뻔스러움과 대조된다. ‘정절’이라는 단어(소프로쉬네 σωφροσύνη)는 ‘바른 정신과 절제’를 뜻한다. 그것은 생각 없이,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과 대조된다. 여자의 인격적 아름다움은 단정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바른 정신과 절제심 있는 말과 행동에 있다. 잠언 11:22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또 여성도가 땡은 머리카락이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라고 교훈한다. 여성도는 외적인 단장에 힘쓰지 말라는 교훈이다. 성도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또 현세적인 것보다 내세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 사실, 외적인 단장은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과 몸을 지나치게 단장하는,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단장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

성도의 참된 단장은 선행의 단장이어야 한다. 이것은 내면적 단장이며 인격적 단장이다.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인격이 되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단장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이 가치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내세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헛되며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11-12절] 여자는 일절[일체] 순종함으로(파세 휘포타게 πάση ὑποταγῇ)[온전한 순종으로] 조용히[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조용]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이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쳤다(엡 6:24). 순종은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아름다운 덕목이다. 물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의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남편이 어떠한지 간에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남편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지만, 여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여자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가져야 한다.

‘조용히 배우라’는 말은 순종을 실천하는 방식을 보인다. ‘조용히’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순종은 조용히 행하는 것이다. 말이 많으면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기 쉽고 그것은 순종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순종은 자신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토론과 순종은 다르다. 토론하고 변론해야 할 자리나 위치가 있고 순종해야 할 자리나 위치가 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성도들은 조용히 배우며 범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또 그는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조용히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은 목사의 직과 장로의 직에 해당한다. 사도 바울은 여성도들이 목사의 직과 장로의 직에서 제외됨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교훈, 즉 하나님의 명백하고 영속적인 뜻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했다(고전 14:34-38).

성인 여성도들을 위한 권찰들이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사들은 목사와 당회의 감독 아래 있는 보조자들이므로 이 교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이런 목회 협력자들은 목사

의 성경적 교훈과 당회의 바른 치리의 권위를 거슬러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이며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신 권위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는 본문의 교훈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허용하는 교회들과 교단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다.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칙이다.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우는 것은 어떤 이유와 변명을 든다 하더라도 신약성경의 명백한 교훈을 어기는 잘못된 일이다.

[13-14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꺾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꺾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한다. 첫 번째 이유는 창조의 질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고 또 그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남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었다. 창세기 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창조의 질서와 여자 창조의 목적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아내는 자기 남편을 가르치거나 다스리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여자의 범죄 때문이다. 인류의 타락은 여자의 범죄 때문에 왔다. 여자가 뱀의 꺾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했고, 그 열매를 자기 남편에게도 줌으로 남자도 범죄케 되었다. 창세기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

때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타락은 첫 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의 실수에서 비롯되었고, 여자는 그 일에 큰 책임을 가진다. 그러므로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고 또 자기 남편을 범죄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가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있다. 즉 여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남자를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바른 정신, 절제]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녀 출산은 여자의 의무이며 특권이고 여자가 할 수 있는 매우 복된 일이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문맥적으로 볼 때 여자의 지위의 회복을 가리킨다고 본다. 여자는 창조의 질서 때문에 또 범죄의 책임 때문에 조용히 배우며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여자가 만일 바른 정신과 절제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그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좋은 자녀들의 출산과 양육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경건한 어머니는 경건한 자녀들과 남자들을 길러낸다. 이 사실은 여자의 지위의 회복을 증거한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여자는 남자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도들은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들로의 외모 단장보다 내면적 단장을 힘써야 한다. 그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절제로 또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

둘째로, 여자의 목사직과 장로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여자가 성경말씀을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것, 즉 목사직과 장로직을 행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 때문에와 범죄의 책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여자들은 오직 조용히 배우며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여자는 절제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그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훌륭한 남자의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

3장: 감독과 집사의 자격

1-7절, 감독의 자격

[1절] **미쁘대**[신실하도대], **이 말이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오레고 ὀρέγω)[사모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대**[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라].

‘감독’은 ‘장로’와 동일한 직분이며(행 20:17, 28; 딤후 1:5, 7) 목사와 치리 장로를 다 포함한다(딤후전 5:17).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교인들을 돌보며 다스리는 직분이다. 교회의 목회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장로들과 함께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다. 목사와 장로들은 이 일을 위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며 심방에 힘써야 한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선한 일을 열망할 것이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다. 또 목사와 장로들의 직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교회들은 목사를 청빙할 때나 장로들을 세울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2절부터 7절은 감독 즉 목사와 장로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 16가지를 말한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네팔레오스 νηφάλιος)[맑은 정신을 가지며, 절제하며] **근신하며**(소프론 σώφρων)[건전한 정신을 가지며] **아담하며**(코스미오스 κόσμιος)[품행이 단정하며, 존경할 만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원문에는 **데이** δεῖ 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온다. 그것은 “[감독은] 이러 이러한 자이어야 한다(must be)”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첫째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여러 요건들을 포괄하는 뜻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사상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이고 생활적인 면에서나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인격적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인격자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

감독은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결혼이 감독의 자격요건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감독은 창세기 2장에 계시된 일부 일처(一夫一妻)의 하나님의 뜻과 결혼 서약에 충실한 인격이어야 할 것이다. 부부관계가 좋은 것은 확실히 좋은 인격자의 모습이다.

감독은 또 맑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절제해야 한다. 감독은 또 품행이 단정하여 존경할 만하여야 하고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라야 한다. 나그네들에게 후한 사람은 확실히 좋은 인격일 것이다.

감독은 또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감독은 교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자이므로 가르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감독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잘 배우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 디도서 1:9는, 장로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남을 때리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전통사본) 오직 관용하며(에피에이케스 ἐπιεικής)[온유하며, 친절하며, 예의가 있으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감독은 또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술을 즐기면 술 취하기 쉽고 술 취하면 건전한 정신과 판단력을 잃고 실수하고 범죄하기 쉽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며 술 취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엡 5:18; 고전 6:10; 갈 5:21).

감독은 또 남을 때리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는 것은 이런 범주에 들지 않지만, 부당한, 지나친, 비인격적 체벌은 학대이며 나쁜 일이다.

감독은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더러운 이익은 뇌물

이나 탈세 등처럼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얻는 물질적 이익을 말한다. 적은 소득이 의(義)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잠 16:8). 성도는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감독은 또 관용하고 온유하며 친절하고 예의가 있어야 한다. 온유함과 친절함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성도가 갖추어야 할 좋은 덕이다.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1:29).

감독은 또 다투지 않아야 한다. 다툼은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오해에서 나온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남과 다투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24-25,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물론, 진리 문제에 관해서는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

감독은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6:24).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했고(골 3:5)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라고 말했다(딤후 6:9-10).

[4-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셀노테스 σεμνότης)[염속함, 진지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감독은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진지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십계명 중에서 인간 관계의 첫 계명은 부모 공경

에 관한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르게 된 가정의 모습이다. 가정은 사람의 일차적인 인격 훈련장이다.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다. 사람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복종하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자격이 부족하다.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 목회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가정 목회를 잘해야 할 것이다.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감독은 또 새로 입교한 자이어서는 안 된다. ‘새로 입교한 자’라는 말은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 신앙생활은 연륜이 필요하다. 신앙 인격은 최소한 몇 년 간의 단련이 필요할 것이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를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것은 그가 교만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교만은 매우 무서운 죄악이다. 그것은 마귀를 정죄하는 죄악이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치명적 해가 된다. 사람은 교만하면 망한다(잠 16:18). 신앙 훈련은 겸손 훈련이다. 겸손은 성도에게 매우 귀한 덕이다. 그러나 겸손한 인격은 몇 년 간의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성화(聖化)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과정이다. 성숙한 신자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인다.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감독은 또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다. 감독은 그 인격이나 도덕성에 있어서 믿지 않는 주위의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그는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그 자신이나 그가 가르치고 다스리는 교인들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마귀의 올무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본문은 감독 곧 목사와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해 16가지를 열거하였다. 그것은 목사와 장로의 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목표와 교훈이 된다.

첫째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신앙인격의 성숙함을 가리킨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화의 목표는 온전함이다.

둘째로, 감독은 한 아내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어야 한다.

셋째로, 감독은 맑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넷째로, 감독은 말과 행동에 자제심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섯째로, 감독은 품행이 단정하고 존경할 만한 자이어야 한다.

여섯째로, 감독은 나그네들을 대접할 줄 아는 자이어야 한다.

일곱째로, 감독은 성경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여덟째로,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아홉째로, 감독은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열째로, 감독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열한째로, 감독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관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열두째로, 감독은 다투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교만하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과 남에 대한 시기와 오해를 버려야 한다.

열셋째로,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열넷째로, 감독은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진지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사람이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믿는 가정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자격이 없다.

열다섯째로, 감독은 새로 입교한 자이어서는 안 된다. 새로 입교한 자는 교만하기 쉽다. 감독은 수년 간 신앙 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열여섯째로, 감독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증거를 얻은 자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감독, 즉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이므로 그 자격이 엄격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해야 하고 이런 점들을 우리의 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8-13절, 집사의 자격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셈노스 σεμνός)[진지하고,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하고](Thayer, BDAG) 일구이언(一口二言)[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이익]를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는 재정 지출의 일을 하고 교회 안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직분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었으나(행 2:41, 4:4) 단지 일곱 명의 집사들을 세웠다(행 6:3). 그들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었다. 8-10절과 12절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7가지를 말한다.

집사는 우선 진지하고(KJV) 품위가 있고(NASB) 존경할 만한(NIV) 자이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추천하였다(행 6:3). 집사는 다른 성도들에게서 칭찬을 듣고 좋은 평판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집사는 또한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하지 않는 자, 즉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성도들의 기본적 덕목이어야 한다. 성도들의 말은 한결같아야 한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일구이언하는 자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

집사는 또 술에 인박이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사람이 술에 인박이면 술 취하게 된다. 술 취함은 그에게서 바른 정신과 판단력을 빼앗아가고 그로 하여금 실수하고 범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경은 술 취함을 엄격히 금했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며(엡 5:18)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큰 죄라고 정죄하였다(고전 6:10; 갈 5:21).

집사는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건전한 인격은 돈 관계에서 깨끗한 자이다. 돈 계산이 흐리거나,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자는 인격에 결함이 있는 자이다. 특히, 집사는 헌금을 계수하고 지출을 처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한다.

도둑질은 큰 죄악이며 인격의 큰 결함이다.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는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참된 믿음은 깨끗한 양심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참된 회개와 죄씻음과 함께 생긴다. 믿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다. 물론 그것은 성경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참 믿음은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다. 물론 그 믿음은 그의 인품과 행실로 나타날 것이다. 모든 성도는 이러한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집사 후보자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한다. 사람은 겉보기와 속이 다를 수 있다. 사람의 인격은 외모로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험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집사로 세우기 전에 교회는 먼저 그 후보자들에게 임시로 이런 저런 일들을 맡겨보고 그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서리집사’직의 설립 동기이었을 것이다. 그 시험 기간을 잘 통과하여 그들의 신앙사상의 건전함과 도덕성과 인격의 덕스러움이 확인되면, 교회는 그들을 집사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11절] 여자들(귀나이카스 γυναικας)[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셀노스 σεμνός)[진지하며, 품위가 있으며, 존경할 만하며]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맑은 정신을 가지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NASB)은 장로들과 집사들의 ‘아내들’(KJV, NIV)을 가리킨다고 본다. 직분자의 직무 수행에는 남자들의 믿음과 인격성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의 헌신과 덕스러운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

우선, 아내들은 진지하고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한 자이어야 한다.

그들은 또 참소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참소하는 것은 남을 악하고 거짓되게 비난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쁜 인격의 모습이다. 사람의 인격의 온전함은 말의 온전함에 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생활에서 말의 부덕함은 직분자의 신임성을 손상시킬 큰 문제이다.

그들은 또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절제하는 자이어야 한다. 아내들은 맑은 정신과 절제심을 가지고 남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들은 또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 충성은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충성은 믿을 만함이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필요로 한다. 맑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고전 4:2). 그런데 남자들의 충성은 아내들의 충성스러운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아내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스러울 때 남자들은 하나님께 더욱 힘있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 요건을 다시 말한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것은 집사가 남편으로서 오직 한 아내에게 마음을 두고 그를 사랑해야 함을 말한다. 부부관계의 순결과 사랑은 좋은 인격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음란은 인격의 큰 결함이며 큰 죄악이다.

집사는 또 자녀들과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부모들의 바른 교훈과 모범이 요구되는 일이다. 성경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경건하고 선한 모범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집사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에서 존경을 받는 자라면, 그는 좋은 신자요 좋은 인격자일 것이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बाटोस् βαθμός)[지위, 단계, 등급]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직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등급을 얻는다. 즉 그들은 주 안에서 더욱 인정받는 자들이 된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영적 성장은 믿음의 성장이다. 모든 신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선한 봉사를 통하여 큰 담력을 얻은 자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좋은 지위와 큰 담력을 얻는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본문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7가지를 열거한다. 그것은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생활과 봉사의 목표와 교훈이 된다. 첫째로, 집사는 진지하고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한 자이어야 한다. 집사는 성도로서의 진지함과 품위를 갖춘 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 둘째로, 집사는 일구이언(一口二言) 즉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그는 이 사람에게는 이 말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 하지 않는 자, 그의 말이 늘 한결같은 자, 늘 진실한 말만 하는 자이어야 한다. 셋째로, 집사는 술에 인박이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술 취함은 실수하고 범죄하는 큰 죄악이다. 넷째로,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그는 돈 사랑의 마음을 버린 자,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버는 자이어야 한다. 다섯째로,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죄 신앙을 가진 자, 중생의 체험을 한 자이어야 한다. 여섯째로,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일곱째로, 집사는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 집사직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주께 대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이다.

또 본문은 장로와 집사의 아내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4가지를 열거한다. 첫째로, 그들은 진지하고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한 자이어야 한다. 둘째로, 그들은 남을 악하고 거짓되이 비난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셋째로, 그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절제하는 자이어야 한다. 넷째로, 그들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회의 감독들과 집사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좋은 인격이어야 한다.

14-16절, 경건의 비밀

[14-15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헤드라이오마 ἑδραίωμα)[지주(支柱)(stay, prop, support)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지주(支柱)]’라고 표현된다. 지주는 지탱하는 것(줄, 기둥)을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 곧 그가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집이다. 주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6:18). 또 이 집은 하나님께서 계신 집이다. 고린도전서 3:16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말한다. 성도 개개인 속에도, 또 회중 전체 속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뜻과 의향과 규례와 방침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방침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장로교회는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수단에 불과하지 성경의 진리와 독립하여 사람들의 의견과 뜻을 따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교훈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모으신 모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와 파멸에서 불러내신 구주이시고 우리를 만세 전에 그의 백성, 그의 양, 그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 구원하셨다.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지주 支柱]이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

과 임무를 보인다. 기둥과 지주는 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기둥과 지주가 약해지면 집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교회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약하게 증거될 것이다. 교회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진리가 흔들릴 것이다.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리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에 굳게 서야 하며 진리를 철저하게 보수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인 신구약성경 66권의 말씀을 조금도 양보하거나 가감치 말고 다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며 실천해야 하며 또 다 충실하게 선포하며 가르쳐야 한다. 만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교회가 아닐 것이다. 참 교회의 표는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참된 말씀을 고의적으로 저버리고 계속 양보한다면, 마침내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교적인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하나님께서는²⁾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교회가 지키고 전파해야 할 진리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된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은 참 종교의 내용이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내용을 이치에 맞게 제시하는 종교이다. 그 진리의 내용들은 크고 놀라우며 사람들에게 논쟁의 여지가 없다. 경건의 비밀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구약성경의 중심이시요 우리의 종교의 중심이시다. 그는 모든 질문의 해답이시요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 그는 과연 우리의 지혜요 의(義)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소위 예수 그리

2) Byz vg^{ms} Ignatius 등이 그러함.

스도의 성육신(成肉身)의 진리이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가장 큰 신비이다. 신구약성경에 증거된 예수님, 교회가 보존하고 전파하는 진리의 내용인 예수님, 위대한 경건의 비밀의 내용인 예수께서는 본래 신적 인격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영으로’라는 말은 영어성경들의 번역대로 ‘성령으로’라는 뜻이라고 본다(KJV, NASB, NIV).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삼일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의 죄 없으심과 의로우심을 증거하셨다.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과 속죄의 죽음과 부활이 천사들에게 증거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은 베드로의 증거대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벧전 1:12).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는 천사들의 수종이 있었다. 그의 탄생 때에도, 그의 갓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에도, 그의 부활 때에도, 그리고 그의 승천 때에도 천사들이 나타나 수종들었다. 그의 재림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살후 1:7).

그는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천사들에게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증거될 복음이었다. 과연 그렇게 되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벌써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증거하였다(골 1:24).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

그는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다. 그는 유대인의 구주만이 아니시고

온 인류의 구주,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지구상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주로 믿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유대 민족만을 차별적으로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온 세계 만민들에게 활짝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을 각 민족, 각 나라에서 수없이 많이 구원해주셨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부활하신 그는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천사들의 증거를 받으며 하늘로 올리우셨다(행 1:9-1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昇天)은 (1) 그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과, (2) 그가 지금도 그의 신성(神性)으로, 성령을 통하여 땅 위에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과, (3) 그가 장차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과, (4)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약속대로 성도들을 부활시키며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라는 것 등을 말해준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이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나 하늘의 천사들도 확실히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하시며 친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이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이다.

둘째로, 교회가 가진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이다. 온 세상에 전파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니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영광 중에 올리우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셋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지주(支柱)이다. 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진리들을 세상 끝날까지 굳게 지키고 믿고 실천하며 가감 없이, 주저함 없이 온 세상 만민에게 증거해야 한다.

4장: 목사의 자기 훈련

1-5절,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심하라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귀신들의 교훈들]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경건의 비밀과 반대되는 것은 배교(背敎) 곧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는 성령의 분명한 말씀을 전한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들이었다. 사도들의 교훈은 성령의 교훈이다. 그러나 사도시대 말기에 이미 배교의 징조가 나타났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하였다(요일 2:18).

배교자들이 따르는 교훈은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훈들’이다. 세상에는 항상 악령들의 활동들이 있어 왔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 아담을 범죄하게 한 자는 바로 사탄이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은 사탄이다(엡 2:2).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가 사탄이다(고후 4:4). 이단은 속이는 영들의 활동이다.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들과 이념들과 종교들은 귀신들의 교훈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의 교훈들을 좇을 것이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말씀만 믿고 따라야 한다. 우리는 신비적 체험을 의존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오직 성경 교훈에 근거해야 한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1:5, 19) 범사에 양심대로 행해야 한다. 양심이 화인(火印) 맞는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더 심한 상태다. 이런 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치 못하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치 못하게 될 것이다. 양심이 마비된 자는 외식하며 거짓말한다.

이단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외식은 이중적인 것을 말한다.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순종하는 척하는 것, 하나님 없는 세속적 삶을 살면서 경건한 척하는 것, 돈과 쾌락을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척하는 것, 진리를 대항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척하는 것이 외식이다. 외식자들은 귀신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며 성령의 교훈을 저버린 자들이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진실하며 진실한 말을 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지만, 귀신들은 사람들을 거짓되고 불신앙적이게 만들어 멸망에 이르게 한다.

(3-5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사도 바울은 귀신들의 교훈들의 예로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교훈을 들었다. 이것은 금욕주의 사상이다. 그러나 결혼과 음식 먹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일들이며 결코 죄가 아니다.

결혼 제도는 사람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1:27-28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창 9:7), 후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창 22:17).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고 복된 제도이다.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창세기 1:29, 31,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는 후 하나님께서는 산 동물을 채소같이 식물로 사람들에게 주셨다(창 9:3). 예수께서는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셨다(마 14:19). 율법 아래서는 정결, 부정결의 음식이 구별되었으나, 복음 아래서는 그 구별도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고 버릴 것이 없다.

금욕주의는 잘못된 교훈이다. 그것은 구원의 길도, 성화의 길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불건전한 자기 학대에 불과하다. 절제는 좋은 덕이지만, 금욕주의는 잘못된 사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며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 사역으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한 금욕생활은 죄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골 2:21-23).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몸의 욕심과 죄성을 죽일 수 있다(갈 5:16).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말씀의 바른 교훈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세상에는 귀신들의 교훈들이 항상 있어 왔다. 말세에 배교의 시대에는 그것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그것들은 성경 진리에서 떠났거나 성경 진리와 다른 잘못된 사상들과 이념들과 종교들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책인 성경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치 말고(신 4:2; 계 22:18-19) 오직 성경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양심에 화인(火印) 맞아 외식하며 거짓 말하는 자들, 즉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각종 이단종파들, 특히 오늘날 천주교회와 자유주의 신학과 은사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요한일서 4:1,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둘째로, 우리는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금욕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금욕주의는 진리가 아니다. 성도의 성화는 금욕주의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몸의 죄성을 이김으로써 이루어진다. 갈라디아서 5:16,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셋째로, 우리는 오직 성경적 교리들과 생활 교훈들 안에 거해야 한다. 신구약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5,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6-10절, 경건 훈련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리라.

디모데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교훈이 귀신의 교훈이라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성경은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성경말씀으로 양육받는 몇 년의 혹은 긴 세월들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7절] 망령되고(베벨로스 βέβηλος)[속되고, 세상적이고] 허탄한(그라오데스 γραώδης)[나이 많은 여자들이 말하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꺄나제 γύμναζε)[훈련하라].

‘신화’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이다. 기독교는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다. 성경 사건들은 신화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속되고 어리석은 신화적 이야기들은, 비록 그것이 육신의 재미와 즐거움을 일으키는 것일지라도, 다 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참된 믿음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대신,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한다. ‘경건’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믿고 그를 섬기는 것이다. 경건은 곧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은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생활은 성도에게 당연한 생활이며 또 진실한 성도라면 다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성도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없다.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경건의 훈련을 힘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가정예배,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예배 시간에 늦지 않

는 것, 십일조 생활, 수요일 밤과 금요일 밤 예배나 새벽예배에 참석하는 것, 권찰이나 교사나 찬양대 봉사하기, 전도하기 등은 다 훈련을 통해 더 잘하게 되는 것이다.

[8절] 육체의 연습(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유익하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빨리 걷거나 달리거나 등산 등을 한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되고 이 세상의 평안한 생활도 보장하지 못한다. 건강 관리를 잘하던 사람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무서운 질병에 침입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금생의 약속’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사회적 평안 등을 가리킨다. 신명기 28:1-6,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시편 1: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9:1, 165,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잠언 3:1-2, 7-10,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건강, 치료]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통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마태복음 6:33, “너희는 먼저 그의[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의식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생의 약속’은 영생 복락을 가리킨다.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면 미래의 구원은 확실해진다. 고린도전서 15: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6:7-8,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베드로전서 1:8-9,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후서 1:10-11,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9절] 미쁘다, 이 말이여[이 말은 신실하며, 모든 사람들이[전적으로] 받을 만하다.

경건이 중요하고 복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말은 신실하고 전적으로 받을 만하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하나님

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것이 영생이요 행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본적 진리를 의심치 말고 더디 믿지 말고 전적으로 받아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경건 훈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훈련이다.

[10절] [이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盡力)하느[모욕을 당하는(전통본문)³⁾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는 ‘경건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믿고 그를 섬기도록 하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모욕도 당하였다. 그것은 그와 그의 일행들이 그들의 소망을 돈이나 육신의 쾌락 같은 세상의 것에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그는 오늘 우리도 구원하셨고 양육하고 계신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경건 훈련을 힘써야 한다. 경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새벽에든지 밤중에든지 성경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둘째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몸의 훈련도 약간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현세에서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과 물질적 여유를 주고 내세에서 확실히 영생을 보장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돈이나 육신의 쾌락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두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구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일시적이며 우리가 죽을 때 허무해지고 또 생전에도 재앙의 날에 허무해진다.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3) Byz it^d vg syr^p cop^{sa bo} arm 등이 그러함.

11-16절, 목사의 자기 훈련

[11절]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은 본 서신의 앞에서 가르친 내용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것들은 특히 바로 앞에서 말한 금욕주의의 미혹을 받지 말고 참된 경건 훈련에 힘쓰라는 교훈을 포함한다. 본 서신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들은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디모데는 그 진리들을 또 다른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신약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다.

특히 ‘명하라’는 말은 이 진리가 신적 권위를 가진 것임을 잘 보인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인간적 권위를 가진 말이라면 명령할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명령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12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전통사본)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청년은 보통 지식과 인격에 부족이 없지 않겠지만,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하였다. 오늘날에도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자기 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로, 말씀 사역자는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말은 사람이 가장 실수가 많은 영역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3:1-2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말씀 사역자는 말에 본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말씀 사역자는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가 되기 쉽다. 그러나 생명은 삶이다. 참된 신앙은 의롭고 선한 행위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17, 26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했다.

셋째로, 말씀 사역자는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다. 십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된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네 마음과 네 성품과 네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다. 또 주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말씀 사역자는 이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

넷째로, 말씀 사역자는 심령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심령’이라는 말은 생각을 가리킨다고 본다. 사람의 생각은 그의 인격을 나타낸다. 말씀 사역자는 생각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말씀 사역자는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믿음은 성도의 기본적 덕이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이 없으면 죄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없다. 이 믿음은 성경말씀과 기도를 통해 강해진다. 말씀 사역자는 믿음이 견고한 자이어야 한다.

여섯째로, 말씀 사역자는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정절’이라는 말은 순결함을 가리킨다. 이것은 이성 관계에 있어서 깨끗함을 뜻한다. 말씀 사역자는 이성 관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말씀 사역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순결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들이 그를 통해 받는 모든 교훈에 신임성을 두고 그것을 믿고 그를 따를 것이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착념하다’는 말은 ‘집중하다, 전념하다’는 뜻이다. 디모데는 아직 젊어서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 않을지라도 그의 현재의 상태에서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했다.

우선 그는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뿐 아니라 공적으로 읽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성경 읽는 일은 자신을 위해 또 교인들을 위해 유익한 일이다. 또 그는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그것을 권하고 가르쳐야 한다. ‘권하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가리키며, ‘가르치는 것’은 성경말씀을 해석하며 그 중요한 교훈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을 말한다.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소홀히 여기지] 말라

‘장로의 회’는 오늘날의 노회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가 말씀 사역자로 안수받을 때 특별한 은사를 그에게 주셨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역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이에게는 해외선교의 은사를, 해외선교도 어떤 이에게는 이슬람 지역의 사명을, 어떤 이에게는 공산권 지역의 사명을, 어떤 이에게는 국내의 농어촌 전도사역, 장애인 전도사역, 군 부대 전도사역, 전문인 전도사역 등을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각각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모든 일’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순결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것과, 성경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말씀 사역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자신의 진보, 즉 지식의 진보, 입장과 분별력의 진보, 인격과 생활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한다. 참된 일꾼은 성화와 직무 수행에 진보를 나타내어야 한다.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자신을 삼가라’는 것은 말씀 사역자의 자기 훈련을 말한다. 이것은 넓게는 모든 성도의 자기 훈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또 ‘가르침을 삼가라’는 것은 말씀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이 그의 가르치는 것임을 보인다. 가르침은 단지 가르치는 방법보다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은 앞에서 한 교훈들이 한 번 실천하고 중단될 것이 아니고 계속 실천되어야 할 것임을 보인다.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은 말씀 사역자의 자기 훈련이 자기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뜻이다. 잠언 14:25,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느니라.” 말씀사역의 결실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지만 또한 상당히 말씀 사역자의 자기 훈련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씀 사역자의 꾸준하고 부지런한 자기 훈련이 없다면 영혼 구원의 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말씀 사역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말씀 사역자는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성경 읽기와 연구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성경 강해를 들음으로 믿음과 인격이 온전해져야 한다.

셋째로, 말씀 사역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자신의 진보, 즉 지식과 분별력과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진보를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에 전심전력하여 지식과 분별력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어야 한다.

5장: 과부와 장로에 대한 교훈

1-16절, 과부에 대한 규례

[1-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교훈하며 권면할 때 예절과 덕을 가지고 해야 한다.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자기의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성도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나이 든 여성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고, 젊은 여성도들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해야 한다. 말씀 사역자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하고 덕스럽고 깨끗하게 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진리는 사람을 사람다워지게 하는 것이지, 사람으로 비상식적이고 예절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예절 있고 덕스러운 인격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들은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예절 있게 말하며 행동해야 한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敬待)하라.

‘참 과부’는 나이가 60세가 넘는 과부로서 그를 돌아볼 자녀나 친척이 없고 평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등의 선한 일들을 행한 자를 가리키는 것 같다(9-10절). ‘경대(敬待)한다’는 원어(티마오 τιμάω)는 ‘공경한다’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물질적 필요를 공급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본문은 교회가 그런 자를 공경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교훈한다(16절).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유세베인 εὐσεβεῖν)[공경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

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나 조부모를 공경하며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 하였다. 효도는 제5계명이 가르친 중요한 덕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보답이며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일이다. 자녀들은 마땅히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의와 선을 실천해야 한다.

[5-6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들은 두 종류가 있었다. 한 종류는 과부가 되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이었다. 이런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외롭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써 은혜 풍성한 삶을 사는 자이었다. 만일 그가 남편을 잃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천국을 사모하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종류의 과부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신에 ‘육신의 쾌락을 구하며 사는 자’이다. 그의 처지는 그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였다. 남편이 없는 것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게 할 뿐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최선용할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이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한다. 그는 영적 생명, 곧 구원 얻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이다.

[7절]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위의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교훈이 된다. 구원 얻은 우리는 육신에 치우쳐 세상의 헛된 쾌락을 구하며 살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며 천국을 소망하고 성경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할 자들이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만 치우쳐 산다

면 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도무지 모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그런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헛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도 중요한 교훈이다. 본질은 신앙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음을 잘 증거한다. 사람이 자기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어떤 자녀나 손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외로운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이나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이다. 그런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사람은 일차적으로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고 돌아볼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런 인간관계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9-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초대교회는 구제해야 할 과부들의 명부를 작성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적어도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였다. 첫째로, 나이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였다. 60세라는 나이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고 또 재혼할 만한 나이도 지났음을 가리킨 것 같다. 둘째로,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이어야 했다. ‘한 남편의 아내’라는 말은 합법적이지 않게 이혼하고 재혼한 자를 제외하는 말일 것이다. 60세가 되기까지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라면 그는 아내

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자이었을 것이다. 셋째로, 여러 가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이어야 했다. 본문은 선한 행실들의 예로 자녀들을 양육한 일이나 나그네들을 대접한 것이나 성도들의 발을 씻긴 것, 즉 섬기는 일이나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한 일 등을 들었다.

[11-15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명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훼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를 거절하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결혼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배반한다’는 원어(카타스트레니아오 καταστρηνιάω)는 ‘음탕하게 된다, 정욕적이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모든 젊은 과부가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그런 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고 보인다.

그런 자들은 처음 믿음, 곧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었을 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첫 신앙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게으러 일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집집에 돌아다니며 해서는 안 될,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한다. 이런 자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이다. 참으로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세상적으로 정욕적이고 음란하게 살 수 없다. 세상적으로 정욕적이고 음란한 자는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여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겠다고 결심

해야 한다. 또 참으로 구원 얻은 자는 말에 덕을 세워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재혼할 수 있으면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돌보고 대적에게 훼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정욕적인 죄를 범치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 된다. 남편이나 아내의 사별로 인한 재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당한 일이다. 성도는 정욕의 죄를 범하는 것보다 재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 데도 스스로 독신(獨身)을 서약하는 것은 자신에게 울무가 되는 어리석은 일이다. 결혼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것이 좋다.

15절에 ‘사단에게 돌아갔다’는 원어(ἔξστράπησαν ὀπίσω τοῦ Σατανᾶ)는 ‘사탄을 따라 치우쳤다’는 뜻이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는 사탄뿐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혹 사탄의 시험을 잠시 받을 수 있을지라도 결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서 건져 자기 품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사탄을 따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며 진리의 바른 길에서 치우쳐 나간다. 사도 시대에도 가룟 유다처럼 이미 사탄을 따라 바른 길에서 치우쳐 나간 자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결혼하여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믿는 성도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그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교회가 참 과부 곧 아무에게서도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돌보며 도와주게 하려 함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은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등 모든 연령층의 교인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 1-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한 가족들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2: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정이다.

둘째로, 교회는 참 과부들을 공경해야 한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敬待)하라.” 참 과부는 나이가 60세가 넘은 자로서 한 남편의 아내 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등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이어야 했다(9-10절). 교회는 참 과부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야 했다(16절).

셋째로, 젊은 과부는 명부에서 제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 정욕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11-15절). 성도는 처음 믿은 대로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육신적 쾌락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정욕적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베드로 전서 4: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넷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자기 가족들과 친족들을 돌아보아야 하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공경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16절, “교회로 잡지지 말게 하라.”

17-25절,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교훈

[17-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였음이니라.

본문은 교인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란 장로교회 헌법이 말하는 ‘설교장로들’ 즉 목사들을 가리킨다. 그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본문은 교인들이 그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복음의 일꾼들을 물질적으로 공급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이라는 말(헤 그라페 ή γραφή)은 단수명사로 여러 개의 책들로 구성된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함을 보인다. 구약 39권의 책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한 권의 책으로 간주되며 신약시대에는 신약 27권의 책들도 포함되었다.

‘성경에 일렀으되’라는 원어(레게이 헤 그라페 λέγει ή γραφή)는 ‘성경이 말하되’라는 뜻이다. 이것은 성경을 인격적 존재처럼 표현한 것이다. 실상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이 말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 25:4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것은 신명기의 신적 권위를 증거한다. 이 말씀은 물론 일차적으로 문자적 의미를 가진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사역자들에게 적용한다.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은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고 신약성경의 복음서들 중 누가복

음에 나온다. 누가복음 10:7,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성경에 일렀으되’라고 말하며 인용한 것은 그가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 이미 복음서들이 성경으로 인정된 것을 보이는 것 같다.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목사와 장로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했다. 신명기 19:15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반인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였다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송사는 경솔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절] 범직한 자들(투스 하마르타논타스 τοὺς ἀμαρτάνοντας)[계속 범죄하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현재분사)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계속 범죄하는 자들 혹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문맥상 장로들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꼭 그들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할 이유는 그들이 현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다른 이들에게 그 죄가 전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범죄자는 공개적으로 책망하여 회개하게 해야 했다. 만일 그가 그 책망을 인신 공격이나 인격모독으로 생각하여 불쾌하게만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 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일 것이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책망받는 죄를 즉시 회개하며 고쳐야 할 것이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지 하지 말며.

천사들 가운데는 타락한 천사들도 있지만 택하심을 받은 선하고

거룩한 천사들도 있다. 거룩한 천사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일을 받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해야 한다. 주의 종들은 아무 일에도 편견이 없어야 하고 편벽 되지 않게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같이, 주의 일꾼들은 공의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범사에 공명정대하며 공정해야 하며, 모든 불의와 불공정을 버려야 한다. 교회에서 재판할 때에는 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원고와 피고가 다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다. 잠언 18:17은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고 말한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성급히](NASB)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참여하지](KJV, NASB, NIV)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안수’는 안수받는 자를 구별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를 축복하는 행위이다. 안수할 때에, 안수하는 자는 안수받는 자에게 심령을 쏟는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심장한 행위가 성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안수는 성급히 행해져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라”는 말씀(메데 코이노네이 하마르티아이스 알로트리아이스 μηδὲ κοινώνει ἀμαρτίας ἄλλοτρίαις)은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치 말라’는 뜻이다. 죄는 전염성이 많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범죄자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죄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죄에 참여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범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는 말씀은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 적용해야 할 교훈이다. 이 세상에는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단사설들이 많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된 풍조들과 일들이 많다.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 있다. 구원 얻은 우리는 지식과 도덕성에 있어서 이미 법적으로 깨끗케 되

었으나 또한 실제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의 ‘자주 나는 병,’ 아마 위병은, 사도 바울의 몸의 가시처럼 (고후 12:7), 만성적 질병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이었을 것이다. 성도에게 고난은 결코 불행의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복이 된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며 더욱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며 더욱 성결해지며 더욱 내세 곧 복된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

(24-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의 죄는 먼저 혹은 나중에 드러나 심판에 나아간다.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약간에 심판하시는(전 12:14)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우리 주께서는 은밀한 구제나 무익한 말 한 마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다(마 6:3-4; 12:36).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며 특히 성경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그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그들을 존중할 것이다.

둘째로, 목사와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직무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목사는 아무 일도 편벽되지 하지 말고 성급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의 죄에 참여치 말아야 한다. 그는 거룩하고 온전해야 한다.

6장: 자족하는 생활

1-10절, 자족하는 마음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훼방[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종은 종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종의 위치는 ‘자기 주인을 범사에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종의 위치이다. 물론 주인은 종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배려해야 한다. 종이 믿는 성도인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주인에게 더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을 더 존경하고 도우며 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 그 제도의 폐지는 오랜 세월을 요했다. 그러나 사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본문의 교훈은 오늘날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적용된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범사에 존경하며 그의 지시를 즐거이 순종해야 한다.

[2] 믿는 상전[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주인]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성도인 종은 자기의 주인이 믿는 성도일 경우 그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직장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고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로마서 12: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라.”

[3-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회기아이는 ὑγιαίνων)[건전한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테 캣 유세베이 안 디다스칼리아 τῆ κατ' εὐσεβειαν διδασκαλίᾳ)]경건에 일치하는 교훈에[(KJV, NASB)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횡방(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전통본문).⁴⁾

본문은 ‘바른 말’과 ‘다른 교훈’을 대조시킨다. 바른 말은 건전하고 유익한 말이다. 바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하신 말씀이나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 즉 경건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의 사상과 교훈은 성경적으로 바르고 경건한 사상과 교훈이어야 한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에 생각을 두지 않는 자는 교만하며 무지하고 싸움을 일으킨다. 그는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남을 비방하고 다투다고 본문은 표현한다. 그는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즉 사욕(私慾)을 품은 자이다. 싸움은 결국 사람의 욕심에서 발생한다. 야고보도 말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욕심]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하였다(약 4:1-2).

바울은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첨가하여 말했다. 교제의 문제는 중요하다. 악은 누룩처럼 퍼진다. 악을 용인하며 악한 자들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에 물들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땅의 것을 탐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과 멀리하는 것이 지혜이다. 악한 자들

4) Byz vg^{mss} syr^p arm Irenaeus^{lat} Cyprian 등에 있음.

은 우리의 전도와 권면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다.

[6-8절] 그러나 지족(知足)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분명히]⁵⁾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못할 것임이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知足)한다는 것은 욕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상적 마음가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미 4:8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증거하였었다. 경건을 물질적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은 악하고 헛된 일이지만, 자족하는 참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는 경건한 성도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마 6:33).

성도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그가 출생 시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별세 시 역시 분명히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무덤에 묻힐 때 이 세상에서 모았던 재물을 가져갈 수 없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며 백년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더 가지고 덜 가진 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가진 자 즉 부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고 덜 가진 자 즉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요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관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을 품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잠언

5) Byz vg syr^p 등에 있음.

30:8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의 삶은 경건하며 자족하는 삶으로 요약된다. 경건과 자족함--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생활 원리이다.

[9절]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욕망]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경건하고 자족하는 삶과 대조하여, 이 세상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많다. 부하려는 마음 즉 무엇을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이다. 이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부하려는 마음, 즉 탐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신자도 예외가 아니다.

[10절] [이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됨이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고통]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파멸케 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탐심과 돈 사랑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야고보서 1:15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말하였다. 오늘날에도 사회의 크고 작은 죄악들이 돈 때문에 일어난다. 공직자 부정부패도, 여성들의 윤락행위도, 사람의 납치나 살해 사건도 보통 돈 사랑에서 비롯된다. 돈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렇게 추하게 만드는지!

특히 성도가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써 자기를 찢르게 된다. 탐심은 돈을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우상숭배이기 때문에(골 3:5)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마 6:24).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이것은 오늘날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적용된다.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존경하고 도우며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물론,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정하게 다스리며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7-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떠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는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며 살아야 하며 여기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나온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9-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마태복음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11-16절, 다섯 가지 명령

[11-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 하라(곧게 붙들라)(KJV, NASB, NIV).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 하여 그 곁에 두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의 일에 쓰시는 자라는 뜻이라고 본다(신 33:1; 왕상 17:24; 왕하 4:7, 9, 25). 복음 사역자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벧전 2:9).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우선 네 가지 명령을 하였다.

첫째로,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했다. ‘이것들’이란 경건과 자족함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돈 사랑의 마음을 버려야 했다. 왜냐하면 돈 사랑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고 말했다. 그는 범사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는 또 경건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해야 하며 또 성경을 읽고 거기에 증거된 모든 진리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또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랑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꽃이요 열매이다. 또 그는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고전 13:4). 이것들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셋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며,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그는 자기 죄성과 세상의 악한 풍조와 사탄의 시험과 더불어 날마다 싸워야 한다. 의심과 불신앙은 큰 원수이다. 영적 싸움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그 길에는 때때

로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과 회개의 눈물도 있으나 승리의 기쁨도 있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

넷째로, “영생을 굳게 붙들라”고 말했다. 영생은 신앙생활의 목표이다. 로마서 6:2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도는 영생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영생의 소망은 복음 진리의 핵심적 내용이다(요 3:16; 딤후 1:1-3).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굳건한 믿음으로 영생을 굳게 붙들어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3-14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들의 근원이요 생명 자체의 근원이다. 그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셨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밝히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하였다. 디모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하게 이 네 가지 명령을 지켜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15-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

을 돌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마지막 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성경에서 그의 재림은 그의 오심 혹은 그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세계 역사의 완성이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의인들과 악인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런 구원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롬 8:18)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몇 가지 사실들을 증거하였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다. ‘능하신 자’라는 원어(뒤나스테스 δυναστης)는 ‘주권자’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그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주권자이시다. 그는 실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는 존재 혹은 죽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다. 그는 누구에 의하여 생명을 얻으신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가 스스로 계심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는 살아계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것이 그의 거룩이며 그의 영광이다. 그는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르시다. 그는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 저 하늘 높이 빛 가운데 계시다. 그의 빛은 그의 완전성을 나타낸다. 이 세상은 유한(有限)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다. 그의 빛은 또한 그의 도덕성을 나타내신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 곧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그의 초월하시고 완전하신 영광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 사람이 그의 영광을 보면 눈이 멀거나 죽을 것이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으신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입니다(요 4:24). 이 세상에서 물질들은 대체로 볼 수 있다. 물론, 공기나 전기나 전파같이 볼 수 없는 것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은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영은 전기나 전파같이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다. 영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영이시다. 그러나 그는 또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영이시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요 영원한 생명(요 17:3)이다.

[17-18절]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아델로테스 ἀδηλότης)[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전통본문)⁶⁾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후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더 명했다(다섯째 명령). 그것은 부자들에게 명해야 할 교훈이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높아지기 쉽다. 신명기 8:12-14, “네가 먹어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牛羊)이 번성하며 네 은금(銀金)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가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고 부유함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함을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잠 30:8).

둘째는 정함이 없는[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6) Byz it^d vg^{cl} syr^p cop^{bo-ms} 등에 있음.

세상 재물은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잠언 23:5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한다. 대형 화재나 붕괴 사고나 교통 사고를 당하거나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병에 걸리는 경우, 짧은 기간에 수천만원, 수억원을 날릴 수 있다. 재물은 참으로 허무하고 불확실하다.

셋째는 오직 소망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시 23:1).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다 시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다.

넷째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이다.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며(엡 2:10; 딤후 2:14) 구원 얻은 모든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다. 무엇이 선한 일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선한 일은 전도와 구제의 일이다.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일, 즉 전도와 구제의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잠언 21:26은 의인은 아끼지 않고 구제한다고 말한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행 2:45), 우리는 선한 일에 부유하고 서로 나눠주며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하고 너그러워야 한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도들의 선한 행실은 장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

7) Byz vg^{ms} cop^{bo-ms} 등이 그러함.

와 같아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마 7:24-25). 반면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17, 26,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선행이 동반되면 그 진실함이 증거되며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 현실에서의 선한 행실들을 통해 그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이다(벧후 1:10-11).

[20절]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그의 서신들 속에 기록된 교훈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보수 신앙이다. 보수 신앙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며 바른 길이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보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 있다.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된 지식은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일으킨다. 우리는 그러한 말과 변론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유익케 하는 바른 지식, 곧 성경적 교훈의 지식을 붙잡아야 한다.

[21절]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⁸⁾

교회 안에는 잘못된 지식과 이단사설을 좇는 자들 즉 가라지들과 쭈정어들이 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생각하면, 그런 자들

8) Byz (048^{vid} it^d) vg^{cl, ww, (st)} syr^p cop^{bo-mss} arm^{ms (ms)} 등.

이 있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사탄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참된 믿음, 곧 성경적 믿음에서 이탈된 자들이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보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그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즉 성도다운 경건함과 지식과 도덕적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장난들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져서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요 우리의 소망인 영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 믿게 하셨고 우리 죄를 다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광스런 천국에서의 영생을 굳게 붙들어야 하고 다 받아 누려야 한다. 영생은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요 복된 소망이다.

다섯째로, 부자들은 다음 몇 가지들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물질적 부요는 교만에 떨어지기 쉽다.

둘째, 정함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며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시다.

셋째,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서론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1:1). 주후 3세기 초 터툴리안은 본 서신을 사도 바울의 글로 인용했다(*On Prescription Against Heretics*, xxv). 본서의 **저작 연대**는 주후 67년 이른 가을이나 68년 봄경일 것이다.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힌 때와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 그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고(딤후 4:6; 빌 1:25와 비교) 그의 주위에는 동료들이 거의 없다(딤후 4:10-11; 골 4:10, 14와 비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후 로마 황제 네로가 죽기 전 즉 주후 68년 6월 이전에 사형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 전에 이 서신을 썼던 것 같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다. 신약성경을 수집한 초대교회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구원의 복음을 해설한 로마서를 맨 처음에 두었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거의 끝부분에 두었다. 그것은 이 세 개의 서신들이 일차적으로 일반 성도들에게보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디모데후서의 **특징적 주제**도 목회 교훈이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후시대의 모든 목사들에게 앞으로 고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니 고난을 각오하며 진리를 보수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유언적으로 교훈한다.

디모데후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진리 보수

2장, 좋은 일꾼

3장, 고통의 시대, 성경의 유익

4장, 전도자의 직무

1장: 진리 보수

1-11절,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1-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그의 원하시는 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다. 예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원하시는 자들을 사도로 삼으셨다(막 3:13-1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은 복음의 중심적 내용을 드러낸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요 1:4).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25; 14:6). 그는 영생의 물을 주시며(요 4:14) 생명의 떡이시며(요 6:35, 48, 51) 영생을 주신다(요 10:28).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며(요 17:3)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요 3:16; 20:31).

첫 사람 아담의 범죄는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셨고 택자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들을 위해 의를 이루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거기에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 10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참 아들같이 여겨졌다(딤후 1:2). 영적 관계는 육적 관계보다 더 귀하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었고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참 평안 곧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과 물질적 안정과 환경적 평안을 얻는다.

[3-5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밤낮 기도하는 중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는 디모데의 진실한 눈물을 생각하며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를 봄으로써 그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였다. 디모데의 눈물은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을 증거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청년이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며 회개의 눈물이며 멸망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었을 것이다.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런 참 믿음이 있었고 그 동일한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온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불경건하고 음란한 세대에 경건하고 거룩한 어머니들이 많이 필요하다.

[6-8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심령]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혹은 '신중함'] 마음이니[심령임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NASB, NIV) 고난을 받으라.

사도들의 안수는 특별한 은사를 동반했던 것 같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듯이(행 8:17),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것 같다. 디모데는 그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해야 했다. 그 은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필요한 사명감과 열심과 충성심 등을 동반한 은사이었을 것이다.

디모데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심령을 주시지 않았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디모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심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며 특히 고난 중에 도우심을 보인다. 그러므로 디모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주의 복음과 주를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막 8:38). 주께서는 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5:11-12).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 역사상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으나(히 11:36-37),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본문은 복음이 주는 구원의 근거를 보인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은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가 창세 전에 은혜로 선택하심에 근거한 것이며 그 내용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있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나타났다. 요한복음 1:14, 18,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아들](전통사본)이 나타내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16, “[하나님께서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전통사본). 또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代贖)의 죽음과 부활로 입증되었다(요 1:29; 갈 1:4).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고린도전서 15:20, 22,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이방인들의](전통본문)⁹⁾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 열매를 맺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반포자와 이방인들의 사도와 교사’가 되었고 13권 내지 14권의 서신을 썼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신학적으로, 신앙 사상적으로 혼란할수록 우리는 사도들의 교훈인 신약성경을 더욱 읽고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다. 그는 영생의 물을 주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영생을 주신다.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그 아니고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9절). 에베소서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救贖)과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었다.

셋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9) Byz C it^d vg syr^p cop^{sa} bo arm 등에 있음.

12-18절, 바른 말씀을 지키자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를 인하여’라는 말씀은 앞절에서 말한 대로 ‘복음을 위해 전파자와 이방인들의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일 때문에’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당하는 고난은 복음 전도자로서 받는 고난이었다. 그가 전도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고난의 길이다. 사탄과 세상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일을 가장 미워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의뢰한 자를 알고 그가 자기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의뢰한 자란 모든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또 바울이 의탁한 것이란 자기의 영혼과 생명 그리고 그가 사명으로 받아 힘쓰는 복음 사역과 그가 세운 교회들일 것이다. ‘그 날까지’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혹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를 가리킬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즉 사도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난들도 보시고 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그는 또한 사랑이 풍성하시므로 자기 백성과 사랑하는 종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또 전능하시므로 그의 참된 종들을 도우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오직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 외의 일들은 그에게 맡기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면 된다.

[13-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바른 말들의 개요를] **지키고**[가지고 있으라.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들의 개요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써’라는 뜻이라고 본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써 바른 말씀들을 지켜야 하고 그래야 그것들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다.

또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 복음 전파의 일을 가리킨다고 본다. 전도의 직무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에게 주신 전도자의 직무를 디모데는 끝까지 지키고 완수해야 했다. 그 직무의 수행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와 화목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약속이었다(요 14:16-17).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듭나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엡 1:13; 고전 12:13). 로마서 8:9,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며 우리 속에 거룩한 정신을 주신다. 또 그는 ‘위로자, 격려자’이시다(요 14:16).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주신 직무를 행하게 하신다(겔 36:27). 디모데의 복음 전도의 직무도 그의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일, 즉 그의 전도자의 직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수하라고 교훈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제한적, 대략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아시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고 그를 버렸다. 디모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울을 버린 대표적 인물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다. 그들은 유명한 인물들이었던 것 같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이와 같이 평탄치 않았다. 그가 곳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말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했을 때 그의 괴로움은 매우 컸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경험하셨던 바이었다. 요한복음 6:60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말하며 물러갔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것은 그의 입장이 바로고 강직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부드럽고 포용적인 말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온전히 따르기보다 적당하게 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자들과 정면으로 싸우기보다 적절히 타협하고 절충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두움 사이에는 타협과 절충이 있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노하시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전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옛날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생활로부터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악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에스라

와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잘못된 점들을 고치는 개혁을 단행했다. 에스라 10:11,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느헤미야 13:1, 3,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비록 반대자들도 없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바른 교훈과 인도를 따라주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들 안에 이런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16-18절]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ἥσασσα)[얼마나 많이]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다. 그것은 오네시보로의 집을 통하여 받은 위로이었다.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신 위로와 격려이었다. 우선, 그는 사도 바울을 자주 유쾌케 하였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때때로 피곤하고 지쳤을 것이다. 그러나 오네시보로의 방문은 그를 기쁘게 하였고 그를 격려했다. 또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참으로 믿음 있는 성도이었다. 세상 친구들은 사람이 부유하고 평안할 때는 가까이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를 떠나간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졌을 때 그의 곁에 있었던 친구들은 소수이었다. 오네시보로는 그 소수의 사람들 중의 하나이었다.

또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있을 때에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구금되어 있을 바울을 수소문하여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마침내 그를 만났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며 재판날을 기다렸을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의 방문은 큰 위로이었을 것이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많이 섬겼었다. 디모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오네시보로는 여러 일들에서와 여러 방식으로 그를 도왔고 섬겼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네시보로는 주의 이름으로 소자(小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말세에 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보수하고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전해야 한다. 말세에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에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보수한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지만, 바른 길이다. 그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고 말한 여호수아가 붙든 길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왕상 22:14)고 말한 미가야 선지자가 지킨 길이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그 옛길, 바른 길을 지켜야 한다.

둘째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고라의 동료들과 유명한 족장 250명은 모세를 대적했었다(민 16:1-2).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였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렸다(딤후 4:10). 지상 교회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한다.

셋째로, 오네시보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 만났고 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 주께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2장: 좋은 일꾼

1-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1-2절] 내 아들이야,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고 진실한 일꾼들이 부족하므로’라는 뜻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강해져서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은혜이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義)를 굳게 믿고 모든 죄를 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담대히 물리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했다. 그가 바울에게 들은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 즉 그의 기적들,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재림 약속 등에 관한 것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것은 곧 복음에 담긴 내용들이다. 위의 사실들은 ‘많은 증인 앞에서’ 입증된 것들이었다. 기독교는 많은 증인들에 의해 입증된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한다. 그 사실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믿을 만한 것들이다.

기독교는 지어낸 이야기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다. 예수님은 지어낸 인물이 아니다. 만일 그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지 않았고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고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고 40일 후에 승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해 증거되고 순교의 피로 입증된 진리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한다. ‘충성된 사람들’이란 참으로 믿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나 환경여건에 따라 변하는 자는 충성된 자가 아니다. 충성된 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 진리를 믿고 그대로 행하는 믿을 만한 자이다. 디모데는 자기가 받은 복음을 이런 충성된 자들에게 전수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후시대에 전달되며 계승되는 방식이다. 이것이 참 제자 훈련이며 신학 교육이다. 교회는 이런 계승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 전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받고 배워 자신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경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 즉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3-4절] [그러므로(전통사본)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전통사본에는 없음)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중에서 고전분투하면서 전도의 일을 하였듯이, 디모데도 이제 고난을 감당하며 일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전도는 전쟁에, 그리고 전도자들은 군인에 비유할 수 있다. 마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 사역을 방해하며 전도자들을 핍박한다. 그러므로 전도와 교회 사역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며 수행해야 할 일이다. 전도자들은 군인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인들은 평소에 훈련에 참여하고 비상이 걸리면 언제나 출동하고 언제나 전쟁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들은 몸이 피곤하다거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을 부른 국가를 위해 충성해야 한다. 그들의 충성된 행위와 수고 때문에 국민들은 밤에도 평안히 쉬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 물론 전도자들이 자기들의 집을 내버리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 무관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들의 집을 돌보는 것도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무엇보다 주의 일이 첫째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5-6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히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에 비교한다. 선수는 규칙들을 지키며 경기해야 한다. 달리기 선수는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축구 선수는 손으로 공을 만지거나 상대방 선수의 발을 걸거나 차거나 하는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선수들은 반드시 경기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사도 바울은 또 복음 사역자들을 농부들에 비교한다. 농사는 부지런함과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땅을 일구어 고르

게 하고 그 위에 씨를 뿌리고 적당하게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막아내고 마침내 잘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기까지 부지런히 수고하고 피약별에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농사일이다. 농부들이 이런 수고를 했을 때 곡식을 거두는 기쁨과 복을 누릴 것이다.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기 생활에 엄매이지 말고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성경에 교훈된 규칙대로 행해야 하고, 부지런하게 또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한다.

[7-9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시기를 원하노라(전통사본)].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전도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증거된 바이다. 예수께서는 비록 육신적으로가 아니고 오직 법적으로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는 참된 인성을 소유하셨고 그 인성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그는 고난 받는 그의 모든 제자들의 본이 되셨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와 같이, 복음 사역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일하고 있지만, 그 결말은 복된 승리일 것이다. 그들은 복되고 영광스런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받았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갇혀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는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제국은 삼백년이 되지 않아서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를 공인하였다. 그 동안 진실한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켜 왔다. 과거에 일본 군국주의의 기독교 핍박이나 그 후 공산주의의 기독교 탄압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어둘 수 없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자유의 복음이며 그 무엇도 그 자유의

복음을 매어둘 수 없었고 또 앞으로도 매어둘 수 없을 것이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참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그를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이다. 어떤 죄인이 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영원한 영광’을 동반하는 구원임을 뜻한다. 구원은 영광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은 죄가 전혀 없고 의만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며(벧후 3:13),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이다(롬 8:18).

[11-13절] 미쁘다, 이 말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쁘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을 만하지만 이 말씀은 더욱 믿을 만한 말씀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0:33).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진실하시며 신실하시고 언제나 믿을 만하시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고난

을 각오해야 한다. 그들이 받는 고난의 결과로 택한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은 영원하며 영광스럽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고 믿을 만한 약속의 말씀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성과 세상의 죄악된 풍조들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야 한다. 고린도전서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린도전서 16:13,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에베소서 6:1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둘째로, 우리는 성경적 사도적 복음 진리와 교훈들의 계대(繼代)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파악하고 보수하고 후대에 전수해야 한다. 우리의 바른 교훈 전수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주일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충성된 청년들을 불러 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그것이 참된 제자 훈련이며 실상 그것이 바른 신학 교육의 일이다.

셋째로, 주의 종들과 교회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시인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주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면 주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고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주의 종들과 교회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기를 사모하며 주를 위해 고난도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

14-19절, 진리의 말씀과 헛된 말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주](전통본문)¹⁰⁾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각오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수고하며 인내할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의 일꾼들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도록 해야 하는 자들인데, 말다툼은 전혀 그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말다툼은 도리어 듣는 자들에게 큰 싸움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해를 주어 그들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다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직 마귀가 기뻐할 뿐이다.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은 1:13에 말한 ‘바른 말씀’ 곧 건전한 유익한 말씀을 가리키며, 2:2에 언급한 ‘내게 들은 바’이며, 2:8에 말한 ‘나의 복음’이며, 2:9에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교회가 소유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며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교회의 힘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야 한다. ‘옳게 분변한다’는 원어(오르도토메오 ὀρθοτομέω)는 ‘바르게 해석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전달은 성경의 바른 해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근거 없이 추측하며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 성경의 어떤 본문을 성경의 다른 곳들의 명백한 진리와 충돌하게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10) Byz A it^d vg syr^(p) cop^{sa-mss bo-pt} 등이 그러함.

사람이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읽게 되지만, 우리가 점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우선 성경 본문의 각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하고, 각 문장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며, 또 그 본문 앞뒤의 문맥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성경의 어떤 불명확한 부분들은 명확한 다른 부분들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모든 복음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였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자기 임무를 다하는 일꾼이다. 일꾼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나, 자기 임무를 다하는 일꾼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정된’이라는 원어(도키편 δόκιμον)는 ‘시험된, 증명된’이라는 뜻을 가진다. 복음 사역자는 설교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 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서 그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힘쓰라’는 말은 바른 말씀의 봉사자가 되는 데에도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인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목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어 다른 이들과 어린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위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도 교훈이 된다. 우리는 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16-17절] 망령되고(베벨로스 βέβηλος)[속되고, 불경건하고, 가치 없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강기이나 γάγγραινα)[괴져, canker(KJV), gangrene(NASB, NIV)]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주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고 바르게 해석하며 불경건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변론들과 논쟁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한 데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은 경건과 믿음에 유익한 말씀이지만, 헛된 말들은 점점 더 불경건과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할 뿐이다.

불경건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말들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다. ‘독한 창질’[괴저]은 몸의 한 부분이 썩어 다른 부분들까지 썩게 하고 마침내 뼈들까지 썩게 하는 무서운 병을 가리킨다. 그것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하지 않으면 온 몸을 버리게 된다. 그것은 오늘날의 암과 비슷하다. 불경건하고 헛된 말들은 이런 무서운 병과 같다. 이단이 그러하다. 교회가 이단에 대해 지혜롭고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부패하고 속화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단자들인 후메내오와 빌레도의 이름을 언급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부패시키는 이단자들의 이름을 분명히 들어 비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이단자들을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불경건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문제는 진리에 관한 문제이었다. 그들은 진리에 관해 그릇되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를 부정하는 잘못이다. 만일 그들의 말이 옳다면,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헛될 것이다. 과연 어떤 이들은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성경 진리를 부정하는 이단자들이다. 예를 들어,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 . . 실제로 성경 역사에 결정적 요소들인 창조 이야기와 및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공통적으로, 예수의 부활 역사도 ‘신화’(saga) 혹은 ‘전설’(legend)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아무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히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¹¹⁾ 이것은 이단 사상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바르트는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나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얼마나 더 불신앙적일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날의 후메내오와 빌레도이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대교단들과 우리나라의 몇몇 대교단들(감리교, 장로교 기장, 통합)이 이런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지 않고 용납하였고,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의 다수의 개신교회들은 신학적으로 변질되고 부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교의 큰 죄악이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지어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불경건하고 헛된 말들과 이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말한다. 히브리서 6:1-2,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道)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에 열거한 진리들은 성경의 근본 진리들이며 그 외에도 더 있으며 이런 근본 진리들을 다시 논해서는 안 된다. 참된 교회는 성경의 근본 진리들 위에 세워져 있다.

11) 교회교의학, 4권, 1부, 335, 336쪽.

이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 하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가리킨다.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39-40,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로마서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단 사설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른 진리를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설 것이며 마침내 다 영광스런 구원에 이를 것이다.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성도는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참 성도의 표를 가지지 못한 자이다. 불의는 도덕적 악 뿐만 아니라, 교리적 악 곧 이단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리적, 윤리적 악에서 떠나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분별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불경건한 이단사설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다. 우리는 천주교회를 비롯하여 각종 이단종파들과, 특히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과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확신해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가리킨다.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진리들을 다 믿고 교리적 이단사설들과 윤리적 죄악들로부터 떠날 것이다.

20-26절, 귀히 쓰는 그릇

[20-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 곧 부잣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주인 밥상에 놓이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은 좋은 그릇일 것이다. 귀한 손님이 오면 사용하려고 보관해 놓은 더 좋은 그릇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쓰레기통으로나 버리는 물건을 두는 데 쓰는 그릇도 있을 것이다.

주의 종들이 후메나오와 빌레도의 말과 같은 불신앙적 이단사설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주의 종들은 무엇보다 교리사상적으로 깨끗해야만 한다. 그들은 모든 이단사설들에 조금이라도 물들지 않고 바른 신앙 사상, 바른 교리 사상을 가져야 주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주께서 귀히 쓰시는 좋은 바른 말씀, 순수한 말씀을 소유한 종이다. 그런 좋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될 것이다.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주의 종들은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한다. 젊은 교역자들은 무엇보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 음란의 죄는 매우 치명적 죄악이기 때문이다. 정욕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남녀 관계의 시험은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성경에서 요셉은 그것에 대한 좋은 예이다. 창세기 39:10, 12,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비록 집주인은 진실을 알지 못하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는 범죄하지 않으려 애쓴 경건한 요셉과 함께하셨고 마침내 그를 들어 가족들을 구원하는 자로 쓰셨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말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인다. ‘깨끗한 마음’은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하게 믿는 마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기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또 다른 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는 자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이다.

참된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지기를 힘써야 한다. 의는 모든 죄와 불의와 악에 반대되는 말이다. 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는 성경적 행위이며, 세상 표준이나 세상 사고방식에 따른 행위와 다르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만을 힘써야 한다.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한다. 모든 불신앙과 의심을 다 버리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온다(롬 10:17).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써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요 13:34).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롬 13:10). 사랑은 모든 윤리적 선을 포함하는 가장 고상한 덕이며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성품이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이다. 또 우리는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마 11:29). 또 우리는 서로

를 이해하고 용서하려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순수하게 부르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해야 한다. 특히 주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들은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도 깨끗하고 온전해야 한다. 주께서는 이런 그릇들을 교회에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23-24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아.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또 주의 종들이 소유해야 할 덕들이 있고 버려야 할 악들이 있다. 주의 종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툼이 나기 때문이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용어나 명칭이나 표현상 문제로 다투는 말다툼이나, 중요성이 없는 지엽적 문제로 다투는 것이나, 세상 문제들의 변론들을 말할 것이다. 그런 변론들은 어리석은 변론들이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본문은 주의 종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온유하고 다투지 않는 성품을 첨가하였다. 과연 온유함은 주의 종에게 필요한 성품이다. 주의 종들이 온유한 성품이 없고 사사건건 사람들과 다투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 모세는 매우 온유한 자이었다. 민수기 12:3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주의 종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 자이어야 한다. 자녀 교육에서와 비슷하게,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는 많은 고통과 눈물과 더불어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25-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교훈, 훈계, 교정,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래[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뜻을 따랐던 저희로 깨어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까 함이래](NASB; KJV, NIV도 뜻이 비슷함).

주의 종들은 거역하는 자를 교훈하고 징계하되 온유함으로 교훈하고 징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진리를 알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다.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들도 회개하여 복음 진리를 깨닫고 믿고 구원 얻을 것이다.

우리는 다 과거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뜻을 따랐었다. 에베소서 2:2,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일서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거역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그들이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그들은 신구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그 말씀만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개혁신학이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이단사설들을 멀리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도 깨끗해야 한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해야 한다. 그들은 육신적 욕망의 죄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셋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서로 다투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교훈하며 징계해야 한다. 거역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온유함으로 그를 교훈하고 교정하고 징계해야 한다. 바른 사상, 바른 인격, 특히 온유한 성품—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들과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며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이며 성화의 목표이다.

3장: 어려운 시대

1-5절, 어려운 시대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칼레포스 χαλεπός)[어려운 (NASB), 위험한(KJV)] 때[때들]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종들은 말세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일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시대는 역사상 종종 있었으며, 오늘 시대는 특히 그러하다고 보인다.

[2-5절] [이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니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부인할 것임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본문은 말세에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말한 이유를 보인다. 2절부터 5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열아홉 가지의 이유와 특징을 말한다.

첫째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과 사람들의 눈과 사회의 여론 때문에 이기적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선을 행하려 하지만, 사람의 뿌리깊은 죄성의 하나는 이기심이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함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할 것이다.

둘째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탐심이다. 이것은 사람의 뿌리깊은 죄성의 또 하나의 요소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다(딤후 6:10). 돈 사랑이 말세의 특징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이다.

셋째로, 사람들은 자궁할 것이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서려 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 하지 않지만,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자기를 내세울 것이다.

넷째로, 사람들은 교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말세에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크게 여길 것이다.

다섯째로, 사람들은 훼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훼방한다’는 원어(블라스페모스 βλάσφημος)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욕하고 비난한다는 뜻이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악하게 모독적이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방하는 말을 잘할 것이다.

여섯째로,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의 기본적 의무이지만, 말세에는 사람들이 악해져서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할 것이다.

일곱째로, 사람들은 감사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부모님을 비롯해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를 것이다.

여덟째로,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 불경건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깨끗함을 말한다. 그러나 말세에는 사람들이 죄악된 일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홉째로, 사람들은 무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없을 것이다.

열째로,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고 보복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열한째로, 사람들은 참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소한다’는 원어(디아볼로스 διάβολος)는 ‘거짓말로 남을 중상하며 비난한다’는 뜻이다 (Thayer). 말세에 사람들은 거짓말로 남을 중상하고 비난할 것이다.

열두째로,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술 뿐 아니라, 말이나 감정이나 오락 등에서도 절제함이 없을 것이다.

열셋째로, 사람들은 사나울 것이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사나움이다. 사람들은 온유하고 양순하지 않고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멸망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심히 강포할 것이다(창 6:11, 13).

열넷째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 양심이다. 그러나 사회가 심히 타락하면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열다섯째로, 사람들은 배반하여 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리를 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말한다. 의로운 선생이신 주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처럼, 사람들은 선생과 친구와 이웃을 배신할 것이다.

열여섯째로, 사람들은 조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자는 모든 일을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말세에 사람들은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같이 조급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열일곱째로, 사람들은 자고(自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곧 교만이다.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또 남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할 것이다.

열여덟째로, 사람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쾌락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즐거움들이 있지만(전 5:18), 말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경건보다 육신의 쾌락이 삶의 목표와 가치가 될 것이다.

열아홉째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세에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과 교회 다니는 모양이나 교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거나 성경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아홉 가지 내용들을 열거한 후에 디모데에

게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교훈했다. ‘돌아선다’는 원어는 ‘돌아선다, 피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런 자들과 교제를 끊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악에 몰들게 되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 운동은 숫자 운동이나 재력 운동이 아니다. 진리 운동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그들로 하여금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인격자가 되게 훈련시키며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게 하는 운동이다. 그것은 숫자가 많은 적든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많은 적든이 문제가 아니다. 땅 위의 참된 교회가 항상 외적 영광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말세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본문은 그 어려운 시대의 특징을 열아홉 가지로 열거하였다. 그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즉 이기적이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악하게 비난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거짓말로 남을 비난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싫어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신을 높이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둘째로, 오늘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보인다. 특히 오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우리는 노아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엘리야나 미가야처럼,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고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6-12절, 바울의 간증

[6-7절] [이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있음이니] 그 여자[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메데포테 μηδέποτε][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여자들은 죄를 많이 진 자들이 되었다. 사람의 죄는 점점 누적되어 무거운 짐이 된다. 그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최악된 행위는 욕심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정욕, 물욕, 명예욕 등 모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해야 한다. 또 그 여자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진리는 죄를 버리고 죄씻음을 받으라는 교훈이므로, 참된 회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

[8-9절]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생각](mind)(KJV, NASB, NIV)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임이니라.

안네와 암브레는 유대 전통에 출애굽 당시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로 알려졌던 것 같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했던 자들도 그들과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저들을 세 가지로 묘사하였다.

첫째로,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진리, 곧 사람이 믿고 구원 얻어야 할 진리를 대적하였다. 바울에게는 대적들이 있었다. 디모데후서 1:15,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2:17,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4:14,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둘째로, 그들은 생각이 부패한 자들이었다. 사람의 부패는 그 생각의 부패에서 시작된다.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참된 회개도, 참된 믿음도 없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얻려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편 14:1-3,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회개는 생각의 변화이다.

셋째로,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2,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나, 버려두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10:26-28,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3: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고린도후서 13: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주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저 악한 자들은 이와

같이 진리를 대적하고 생각이 부패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이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다.

[10-11절] [그러나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나의 교훈’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가리킨다. ‘행실’은 복음에 합한 그의 행실을 가리키며, ‘의향’은 그의 행실의 의도를 말한다.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 ‘사랑’은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말하며, 또 ‘오래 참음’과 ‘인내’는 그가 많은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참고 견딘 것을 가리킨다.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핍박과 고난의 일들이다. 사도행전 14:19,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선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밖에 끌어 내치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일들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고 말한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 다니며 그가 당한 고난들을 다 보았다. 그는 그와 함께 가까이 활동하면서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가 어떻게 믿고 사랑하며 오래 참고 인내했는지, 또 그가 어떤 핍박과 고난들을 받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에서 그를 건져주셨다. 그가 순교해야 할 때가 되면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도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자이시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 자신이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참된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주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5:11).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은 기독교 역사상 사실이었다. 한국교회도 일제 시대와 공산 정권 하에서 그러하였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아직도 남아 있다. 진실한 성도들은 항상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면서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본문에 언급된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죄를 무겁게 졌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렸고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복해 죄를 짓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의 대적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바울 당시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생각이 부패되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 교회에는 때때로 이런 자들이 있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결코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믿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바른 교훈, 바른 행실, 바른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핍박과 고난의 견뎌움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에는 주님의 위로와 보호와 구원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며 주를 따라야 한다.

13-17절, 성경의 효능

[13-14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세상은 악하며 속이며 속는 세상이며 그런 일들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디모데는 이미 배웠고 확신하였다. 그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먼저 잘 배우고 그 배운 진리를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 풍조나, 해이해지고 속화된 교회들의 풍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 옛신앙, 성경적 신앙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배웠던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달한 선생이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 사도들의 교훈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입장과 인격과 삶을 기억하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진리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듯이, 오늘날도 바른 진리를 배운 자들은 그 진리를 가르쳐준 목사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 진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또 그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았던 성경을 기억해야 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은 성경 대신 세속적인 오락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효능이 있다. 첫째로, 성경은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효능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죄인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詳考)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가복음 24:26-27,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는다. 요한복음 20:30-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6-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엑세르티스메노스 ἐξερτισμένους)[온전히 준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증거한다.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의 모든 책들을 가리킬 뿐 아니라, 또한 각 책의 모든 부분을 가리킨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적 내용들과 교리적 내용들과 윤리적 내용들을 다 포함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원어(데오프뉴스토스 θεόπνευστος)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이라는 뜻이다. 그 말은 성경의 신적 원천과 신적 권위를 보인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며, 성경의 사상은 사람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상이며 성경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은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포함한다. 신앙생활에는 믿어야 할 내용과 행해야 할 내용이 다 중요하다. 오늘날 교인들은 단지귀를 즐겁게 하며 웃기고 울리는 말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교회들이 속화된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해야 한다. ‘책망’은 교리적, 윤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바르게 함’은 잘못된 교정이다. 우리는 성경의 책망을 통해 사상적, 윤리적 오류를 고친다. ‘의로 교육함’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나, 우리의 인격과 삶이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준비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효능이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구원의 목표는 우리로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며 성경은 이 일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로마서 6:2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함으로써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

이 되고 진리의 진리 됨, 새 생명의 생명 됨을 증거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확신해야 하고 그 확신 안에 거해야 한다. 누가복음 1:4,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20:31,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둘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전통사본).

셋째로, 우리는 온전케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16-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주야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자들은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온전케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칭의(稱義)이며 법적인 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의로운 인격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화이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 안에 오셨고 거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죄성을 극복함으로 성화를 이룬다. 갈라디아서 5:16,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베드로후서 1:10의 말씀대로, 우리도 성화를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

4장: 설교자의 직무

1-5절, 설교자의 직무와 고충

[1-2절] [그러므로 내가](전통사본)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나타나실 때에 그의 나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 앞에서](전통사본)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에피스테미 ἐφίστημι)[준비하라](Thayer, BDAG). **범사에**[온전히]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교와 전도의 직무를 엄숙하게 명하였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부분에서 성경의 유익에 관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구원 얻은 자로 온전한 인격자가 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설교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주께서 목사들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직무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일을 엄숙하게 명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는,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늘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지만,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디모데가 전해야 할 말씀은 첫째로 복음 진리이며 둘째로 ‘바른 교훈’ 곧 바른 교리와 생활 교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

‘전파하라’는 것은 선포하라는 뜻이다. 설교는 대화나 토론이 아니고 선포적이어야 한다. 설교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관계치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

는 것이다. 사람의 견해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선포하면 된다. 설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들이 항상 힘써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즉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많은 죄인들이 지옥 곧 영원한 멸망의 불못을 향해 가고 있다. 또 구원 얻은 영혼들도 항상 하나님의 모든 뜻을 듣고 배워야 한다.

‘온전히 오래 참으라’는 말은 설교 사역이 어려운 일임을 암시한다. 영혼들의 구원과 변화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탄은 자기 권세 아래 있는 죄인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죄성과 인격의 결함은 매우 느리게 극복되고 고쳐지는 것 같다. 전도의 결실이 금방 보이지 않기도 하며 또 믿는 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설교자를 낙망케 하는 요인들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온전히 오래 참음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

설교는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가르침과 경책함과 경계함과 권면함을 포함한다. 성경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며 또 그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다. 그러나 전도와 양육은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다. 구원의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의 교훈과 함께, 교리적, 윤리적 부족과 잘못에 대한 책망과 경계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하다.

[3절] [이]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우크 아넥손타이 οὐκ ἀνέχονται)[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투스 뮈투스 τούς μύθους)[신화들](NASB, NIV)를 좃으리라 [좃을 것임이니라].

목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기를 힘써야 할 이유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시대가 이미 왔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다고 해서, 이 세상의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 성경은 오히려 어렵고

힘든 날들이 올 것을 예언한다. 물론, 역사상 교회들이 부흥하는 때도 있었으나, 교회들이 매우 해이해지고 속화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잘 받지 않을 것이다. 바른 교훈은 역사적 기독교, 즉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전달된 바른 교훈, 신구약 성경에 밝히 계시된 교훈을 가리킨다. 그것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 즉 옛신앙이다. 성경적 기독교는 교리와 생활 교훈으로 구성된다. 바른 교리의 핵심은 속죄의 복음 진리이다.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진술한 것이 신학이다. 옛날부터 믿어온 기독교 신앙은 바른 신학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무엇이며 특히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가 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내세의 소망은 무엇인지 등이 교리들과 신학의 주요 내용이다. 개혁신학의 내용이 그러하다. 바른 생활 교훈은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부모 거역,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심 등의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며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이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귀가 가렵다’는 말은 귀를 끊어주는 말, 곧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원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 말들의 주제나 내용은 천적(天的)이거나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다. 그런 소원은 육신적 욕망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충족시킬 스승들을 많이 둘 것이다.

사람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좇을 것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바른 교훈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 대신 헛된 이야기들, 즉 신화들을 좋아할 것이다. 신화는 사실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이다. 이것은 재미있을 수는 있으

나 무가치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좋아할 것이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예화들이나 과장된 이야기들도 이런 유의 것들이다. 우리는 이런 무익하고 헛된 말들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견디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시대에도 목사는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본문은 목사에게 주는 네 마디의 명령이다. 첫 번째 명령은 “모든 일에 근신하라”는 것이다. 목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만일 그가 깨어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그 자신이 그 시대의 잘못된 풍조에 물들고 영향을 받아 변질되기 쉬울 것이다.

두 번째 명령은 “고난을 견디라”는 것이다. 고난 받을 각오를 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시대에 부름 받은 목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마귀의 종들이 세력을 얻고 악한 자들이 앞장서서 분주히 왕래하며 무지한 교인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주의 참된 종들은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

세 번째 명령은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 명령은 “네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목사의 일차적 직무는 설교이며,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는 주께서 교회에 맡기신 첫째 과제이다. 물론,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목사는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면해야 한다. 이것이 목사의 직무이다. 목사는 전도뿐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경계와 권면의 모든 직무를 다해야 한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잘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어려운 시대를 당하였을지라도, 목사들은 설교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변질시키거나

사람들의 기호나 취향에 맞춰 줄이거나 절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타협 없이 충실히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즉 모든 산 자들과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바르고 선하고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로, 설교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항상 힘써야 한다. 그는 온전히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한다. 교인들은 그들의 목사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것이다.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생각된다. 오늘 시대는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저버리는 배교와, 그 배교를 책망하지 않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타협과, 신비적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은사주의가 만연한 혼돈의 시대이다.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이다. 교인들은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고, 성경의 바른 교훈, 즉 바른 교리와 생활 교훈에 관심을 갖고 사모하기보다 돈 사랑과 육신의 쾌락 추구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러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넷째로, 참된 목사들은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 직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바른 말씀을 전하며 참된 교회를 건립하고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목사는 근신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성경의 바른 교훈을 계속 충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교인들도 근신하여 그것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

6-8절, 사명의 길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적 서신이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로마 옥에 갇혀서 순교의 시간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이 마지막 편지를 썼다고 보인다. ‘관제’(灌祭, drink offering)는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제사 방식을 말한다. ‘부음이 된다’는 말은 ‘부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암시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붓고 있었다. 그것이 전도자의 길이다. 전도자는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도 하는 것이다. 바울의 순교의 죽음은 그가 전파했던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복음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쳐진 복음이다.

‘떠날 기약’이라는 말은 죽을 때를 가리킨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움을 느끼고 있다. 죽음은 떠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즉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성도의 영혼은 거기서 임시로 거하다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와서 몸과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그의 사명의 생애를 세 마디로 표현하였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성도의 생애가 싸움의 생애임을 보인다. 그러나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죄악성과 싸우며 세상의 악한 풍조와 싸우며 그 배후에 활동하는 사탄과 악령들과 싸운다(엡 6:12). 전도와 설교는 큰 싸움이다. 바른 말씀의 전파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사명의 길은 싸움의 길이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진리를 보수하는 것도 싸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싸움이든지 싸움은 언제나 힘들고 피곤해지고 지치기 쉽다. 영적 싸움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도의 싸움과 목사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바울이 어떻게 사명의 길에 충성했는지를 증거한다. 바울의 ‘달려갈 길’이란 전도자의 길이었다. 그는 그 사명의 일, 곧 전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하였다. 사도행전 20:24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다. 그의 사명의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의 일을 다 마쳤다. 사명자는 중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명의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려야 한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믿음의 귀중함을 증거한다. 지킬 것 중에 지킬 것은 믿음이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은 생명이며 보화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파선되고 변질되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다. 그러나 바울은 온갖 고난 중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순수한 성경적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은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의(義)를 가리킨다고 본다. 성경 다른 곳에서 ‘생명의 면류관’(약 1:12; 계 2:10)과 ‘영광의 면류관’(벧전 5:4)이라는 표현들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영광을 가리킨다고 본다. 주께서는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울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장차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의롭다고 선언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에서 인류가 의인과 악인 두 부류로 나뉠 때, 바울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받을 의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의가 아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것을 말한다. 성도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롬 10:4)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롬 3:21-22). 이 의는 바울에게만 주실 복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주실 복이다. 성도는 예수님 믿고 그의 재림과 천국과 부활을 사모하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없는 자는 참 신자가 아닐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 덕목이다. 모든 믿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의를 얻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속의 죄성과 세상의 악의 풍조와 마귀의 시험과 싸우는 싸움이다.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쳐야 한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자로서의 일평생의 삶이 있고 직분자로서의 삶이 있다. 우리는 신자로서와 직분자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쳐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한다.

넷째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실 의를 사모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나, 믿음과 순종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의를 확인 받아야 할 것이다.

9-22절, 복음 사역의 어려움들

[9-10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갔음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속히 자기에게로 오기를 요청했다. 그 이유는 동역자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복음 사역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복음 사역자들의 부족일 것이다. 데마는 골로새서 4:14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그에게는 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고 그에게서 세상적 소망이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의 생각에, 바울은 속이는 자요 그가 전하는 복음은 속임수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우리는 그들이 그곳으로 간 이유를 모른다. 그들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 바울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바울 곁에 있지 않다. 옥에 갇혀 부자유스럽고 나이 많은 사도 바울 곁에 그를 도울 수종자가 없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누가는 의사로서(골 4:14) 바울과 더불어 전도 활동에 참여했고 지금도 바울 곁에 있고 아마 의술로도 그를 도왔을 것이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졌고,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다. ‘누가만’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곁에 필요한 동역자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문 20절 이하에도 몇 명의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 중요한 일꾼들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마가는 바울의 처음 전도 여행시에 바울과 함께 있었으나 밤빌리

아의 버가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강하게 거절하였었다. 이런 신념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고 마침내 서로 헤어지기까지 했었다(행 15:36-41). 그러나 이제 바울은 마가가 그의 일에 유익하므로 데려오라고 말한다. 이전에는 마음이 약했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 유익한 일꾼이 되었다.

복음 사역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충성된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인들은 많으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일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부족했다. 그러나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직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누가도 있었다. 또 마가도 이제 그에게 유익한 동역자의 한 사람이었다.

[13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사역의 어려움은 동역자의 부족뿐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은 춥고 배고프며 기타 육신적 고통이 있는 곳이다. 더군다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21절).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노 사도가 밤의 추위에 떠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추위는 복음 사역의 어려움의 한 면이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일에 힘썼고 성경말씀을 읽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하였다. 그 책은 물론 성경책이다. 원문에는 복수명사로 되어 있다. 그것은 여러 권의 책들, 즉 여러 개의 두루마리들을 의미한다. ‘가죽 종이’라는 원어(멤브라나 *μεμβράνα*)는 양피지 즉 양의 가죽을 말려서 만든 종이를 가리킨다. 바울은 배고픔과 추위가 있는 옥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았고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평안할 때, 건강할 때,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겠는가?

[14-15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복음 사역의 또 하나의 어려움은 대적자가 있는 것이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20에 언급된 인물 즉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과선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인 그 알렉산더일 것이다. 그는 처음에 교인이었던 것 같다.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옛날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처럼,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이었던 가룟 유다처럼, 그는 하나님과 진리를 배반한 자가 되었다. 그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였다. ‘해를 많이 보였다’는 말은 ‘악한 일을 많이 행했다’는 뜻이다.

또 그는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무시했고 그와 변론했고 그의 말씀을 심히 대적했었다. 이런 자들이 구약교회 안에 도, 신약교회 안에 도 있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였던 예수님에게도, 바울에게도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목회 사역에 때때로 대적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복음 사역에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주의하라”고 말한다. 진실한 성도는 이런 자를 주의해야 한다. 이런 자가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없다. 주의하면 된다. 우리는 이런 자들과 동류가 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과 사귀면 시험에 들기 쉽고 신앙에 유익 대신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현세에서도 그들의 악을 보응하신다. 그것은 악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일이 너

무 방해를 받지 않고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복음 사역의 어려움은 대적자가 있는 것뿐 아니라, 또한 때때로 외로이 홀로 싸워야 하는 것이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그의 편에 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외로운 사역의 걸음인가! 이것이 진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때때로 가야 했던 길이다. 노아가 이 길을 갔고 엘리야도 갔고 다니엘도 갔고 바울도 갔다. 우리도 가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버렸던 자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다. 바울은 저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공훈과 사랑으로 감싸고 있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공훈과 사랑이다. 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고 말씀하셨다(눅 23:34).

[17절]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적자가 있었고 또 사람들의 지지나 격려는 커녕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림으로 홀로 외로이 싸워야 함이 있었으나, 주께서는 그와 함께 하였고 그를 강건케 하셨다. 목사의 용기와 힘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한가지 사실에 있다. 실상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께서 바울을 강건케 하신 것은 그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이었다. 복음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이다. 주께서 목사들을 강건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택한 백성이 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극심한 반대와 비난, 그리고 위협과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그는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 ‘사자의 입’이라는 말은 그를 죽이려는 무서운 악의 세력을 비유한 말일 것이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신다’는 원어(소조 σωζω)는 ‘구원한다’는 뜻 외에 ‘지킨다’는 뜻도 있다. 이 경우는 영어성경의 번역대로 ‘지킨다’는 뜻이 적합해 보인다(KJV). 주께서는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바울뿐 아니라, 주의 신실한 모든 종들과 자녀들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만 신실해야 한다.

신약성경에서 ‘주’는 대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주께서 바울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그는 신적 능력을 가지시고 일하시며 신적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19-22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가족]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¹²⁾

브리스가[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가족 등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동역자들이었다(롬 16:3-4; 딤후 1:16-18). 또 바울은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형제들을 언급한다. 그들은 다 교회들의 모범적인 봉사자들이었던 것 같다. 특히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다”는 원어(트로피몬 데 아펠리폰 엔 밀레토 아스테논타 Τρόφιμον δὲ ἀπέλιπον ἐν Μιλήτῳ ἀσθενούντα)는 “드로비모를 병든 채 밀레도에 두었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이었다. 사도

12) Byz vg cop^{bo-pt} 등에 있음.

들이 다 그러하였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말기에 그는 드로비모를 병든 채 밀레도에 두었다. 이것은 사도시대의 말기에 주께서 병고침의 은사를 점차 거두어 가신 증거인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기적이 사도시대 이후 모든 시대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다. 기적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들을 확증하는 목적을 가졌으며,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이 거두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복음 사역에는 어려움이 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떠나갔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총성된 종 바울을 대적하였다. 동역자의 부족, ‘추위’ 같은 육체적 고난, 감옥에 갇힘, 의식주의 궁핍, 대적자들, 교인들이 참된 사역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버리는 것 등이 그것들이다. 복음 사역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 참된 교제를 나눌 대상이 없고 의식주의 궁핍이 있고 홀로 외로이 싸워야 하는 일도 있다. 신앙의 여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바울을 위로하셨다. 바울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총성된 일꾼인 디모데, 처음에 연약했을지라도 나중에 복음 사역에 유익했던 마가,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의사 누가 같은 몇 명의 동역자를 주셨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성경 읽기에 힘쓰도록 은혜와 힘을 주셨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를 도우셨고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도 끝날까지 그를 지키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심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회를 세우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

디도서

서론

디도서의 **저자**도 사도 바울이다(1:1). 터툴리안은 본 서신을 바울이 디도에게 쓴 것으로 인용하였다. 본서의 **저작 연대**는 아마 주후 65년경일 것이다. 본서는 사상과 문체에 있어서 디모테전서와 가깝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테전서를 쓴 직후 본 서신을 썼을 것이다.

디도서의 **특정적 주제**도 목회 교훈이다. 디도서는 디모테전서와 같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 교훈한 후, 구원의 목적으로서의 선행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본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장로의 자격

2장, 각 연령층의 사람들에 대한 교훈, 구원의 목적

3장, 선행에 대한 강조, 이단자들을 거절할 것

1장: 장로의 자격

1-4절, 사도의 직무

[1-2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나타낸다. 바울은 자유자이었지만,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복종함은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이다. 더욱이, 구속(救贖)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 바울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더욱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된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다(롬 6:22).

바울은 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증거한다. ‘사도’(使徒)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고 말한다. 그가 사도가 된 목적은 세 가지이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엡 1:4).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다 영생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만 영생에 이를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것이다.

둘째로, 바울이 사도된 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이었다. ‘경건함에 속한’이라는 원어는 ‘경건함에 일치하는, 경건함에

이르는'이라는 뜻이다. 진리의 지식은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지식이 아니고 경건함에 맞는 지식, 경건으로 나타나는 지식이다.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인간이 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지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에 관한 지식, 내세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

셋째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었다. 영생은 인생의 최대의 소원이다. 사람은 본래 영생할 존재이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음이 왔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사함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원리적으로 성도들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그들은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다.

[2-3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서는 거짓이 없으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진실하시다. 그러므로 그는 믿을 만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하셨다. '영원한 때 전부터'라는 원어(프로 크로논 아니오니온 πρὸ χρόνων αἰώνιων)는 '오래 전부터'라는 의미도 가진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및 선지자들에게 영생을 약속 혹은 암시하셨다. 이제 때가 되었다. '자기 때에'라는 원어(카이로이스 이디오이스 καιροῖς ἰδίους)는 '자기 자신의 적절한 때에'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시간표가 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적절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작정하신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 말씀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도'(케뤼그마 κήρυγμα) 곧 선포 혹은 설교라는 방법을 통

하여 나타내셨고, 이 설교의 일은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들과 목사들에게 맡겨졌다. 이것이 사도들과 목사들의 직무이다. 전도 혹은 설교는 일차적으로 사도들과 목사들에게 맡겨진 직무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택한 백성을 다 찾아 구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다. 이것은 전도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다. 전도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헌금해야 한다. 예배당도 이 일을 위해 의미가 있을 뿐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신 일인 전도에 다 참여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좇아 은혜와 [공홀과(전통본문)]¹³ 평강이 네게 있을지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였다. ‘같은 믿음’이라는 원어(코이네 피스티스 *κοινή πίστις*)는 ‘공통적 믿음, 함께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다. 이 공통적 믿음이 피부색깔, 언어, 지방, 사회적 신분, 학력, 빈부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는 끈이다. 이 공통적 신앙이 바로 사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성경적 신앙이며 ‘옛신앙’이다. 오늘날에는 이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공통적 믿음은 교회의 기초이므로 이 믿음이 없으면 참된 교회도 없다. 우리는 이 공통적 믿음을 성경 속에서 그리고 바른 신앙의 전통 속에서 확인하고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영생의 소망 안에서 항상 주님을 섬겨야 한다.

13) Byz A cop^{ms} Origen^{lat} 등에 있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라고 기원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항상 나오는 이 기원의 말은 의미심장하고 복된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화(聖化)를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며, 또 ‘하나님의 평안’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화에 근거하여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 그리고 물질적 안정과 환경적 평안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이미 받았고 또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믿음은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것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믿음이다. 그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둘째로, 우리는 경건한 진리 지식을 가져야 한다. 성도의 참된 지식은 그의 경건하고 선한 인격과 삶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죽은 지식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진리 지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영생이다. 그것은 성도의 복된 소망이다. 세상은 늙고 병들고 죽는 절망의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다. 우리는 이 복된 소망을 가져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이미 받았고 또 항상 사모하며 풍성하게 받아 누리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인격과 삶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고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환경적 평안을 누리야 한다.

5-9절, 장로의 자격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본문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말한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것’은 교리 사상의 면에서나 교회 행정과 질서의 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신앙 지식에서나 교회 행정에서 부족한 점들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했다. ‘장로’라는 원어(프레스비테로스 πρεσβύτερος)는 ‘나이가 더 든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신약성경에서 감독의 직분자를 위해 사용되었다. ‘장로들’이라는 말은 한 교회에 장로가 적어도 두 명 이상 있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회가 한 사람에게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 말한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은 디모테전서 3장의 내용과 비슷하다.

무엇보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교리사상이나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자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을 인도할 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인격, 곧 온전한 인격자이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이거니와, 행실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장로는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 말씀은 일부일처(一夫一妻)가 하나님의 뜻을 암시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사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 결혼한 자는 부부 관계와 결혼 서약에 충실해야 한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좋은 인격이 아닐 것이다.

장로는 또한 신실한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한 자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본문은 그 자녀들을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라고 표현하였다. 방탕은 자신의 의무나 책임, 삶의 목표 등을 잊어버리고 술과 음행 등 육신의 쾌락에 빠진 것을 말한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에 대해 다 적용된다. 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는 경건함과 거룩함, 선함과 진실함과 단정함이다. 바른 신앙교육은 경건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만들 것이며, 그것은 믿음의 한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부모라면 자녀를 성경말씀으로 바르게 충실하게 가르치며 믿음으로 양육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믿음 있는 자녀가 될 것이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신앙생활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7-9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利)[이익]를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레[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성경에서 감독과 장로는 동일한 직분이며(행 20:17, 28) 그 둘이 다르거나 둘 사이에 등급이 있다는 암시는 없다. ‘감독’(에피스코포스 ἐπίσκοπος)이라는 말은 ‘돌아보는 자, 보살피는 자, 감시하는 자’라는 뜻이다. 감독은 교회를 돌아보고 보살피며 교인들이 바른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 곧 교회의 관리자이다. 그것은 교회의 재산이나 재정을 감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교인들의 영혼, 즉 그들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자, 즉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생활하는지 살피는 자이다.

한번 더, 본문은 감독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어야 함을 언급한다. 그는 사상에서나 행위에서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그는 흠 없는 온전한 신앙 인격자이어야 한다. 이 점이 반복해서 강조된다.

장로는 또한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바른 신앙인은 자기 뜻대로 무엇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할 것이다.

장로는 또한 급히 분내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사람은 성냄으로 실수하기 쉽고 선한 일을 어그러뜨리기 쉽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약 1:20). 사람에게 정당한 의분(義憤)은 필요하고 비진리와 불의를 볼 때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깊이 생각한 후에 해야 하며, 오직 진리와 의를 위해서만 해야 하고, 단순히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로는 또한 술을 즐기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술을 즐기는 자는 술 취하게 될 것이다. 술 취함은 사람으로 실수하고 범죄하게 한다. 성경은 술 취함을 명백히 정죄한다(고전 6:9-10; 갈 5:21; 엡 5:18).

장로는 또한 구타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죄악이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성경이 명령하는 바이지만(잠 13:24; 22:15; 23:13, 14; 29:17), 그런 경우에도 격한 감정을 가지고 또 비열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인격적이며 해야 한다.

장로는 또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더러운 이익'은 정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성도는 고리대금이나 투기성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는 게으르게 먹으려 하지 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려 해야 한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현금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

디도서 1장: 장로의 자격

의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인데, 그것은 장로교 헌법대로 목사와 장로 들 즉 당회가 감독해야 한다. 헌금을 계수하고 정리하거나 지출하는 일은 집사들이 할지라도 그 재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용되게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들 즉 당회의 책무이다.

장로는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는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남과 나눌 줄 아는 인격자이어야 한다.

장로는 또한 선을 좋아하는 자이어야 한다. 온전한 인격은 선한 인격이며 선을 좋아하는 인격이다. 선행은 참 믿음의 열매이다.

장로는 또한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자이어야 한다. 근신하는 것은 정신을 차려 조심하는 것을 말한다. 의로운 것은 성경과 양심에 비추어 정정당한 것이다. 거룩한 것은 죄와 불결을 버린 것을 말한다. 절제하는 것은 술이나 육신적 쾌락을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일이라도 지나치면 좋지 않다.

장로는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이어야 한다. 9절을 다시 번역하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의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이다. 그래야 그가 다른 이들을 교훈하고 권면할 수 있고 또 바른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장로들, 감독들 즉 목사와 장로들은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자이다. 그들은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인격자이어야 한다. 신앙 지식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나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 이런 자가 교회의 감독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의 성화의 목표이다. 우리 모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선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믿고 소망하고 실천하자.

10-16절, 복종치 않는 자들

[10-11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엇드러치는도다.

당시 그레데섬의 각 성의 교회들에는(5절)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복종은 성도의 미덕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이다. 우리는 성경적 교훈에 복종해야 한다. 복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대항하는 악이다. 또 헛된 말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말을 가리킨다. 또 속이는 것은 마귀적인 죄악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다(요 8:44).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서 제외되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계 21:8; 22:15).

그런데 당시 교회들 안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이 당시 교회들의 현실이었다. 특히 할례당 가운데 심했다. ‘할례당’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이 있는 자는 복종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 위의 교회들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은 불완전한 교회들이었다.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지식과 성화가 불완전하며 사탄의 활동이 맹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

저 복종치 않는 자들은 더러운 이(利)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엇드러치고 있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이익이 삶의 전부이다. 돈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다.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친다’는 뜻이다. 참된 교사는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악한 교사

는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자이다. 그 결과, 그들은 집들을 온통 엮드러쳤다. 즉 그들은 믿는 가정들의 믿음을 어지럽히고 파괴시켰다. 아마 그들은 집집마다 방문하며 그런 일을 했을지 모른다. 말의 영향력은 크다.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주지만, 나쁜 말은 나쁜 영향을 준다. 이단은 누룩같이 퍼진다.

그러므로 바울은 ‘저희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불순종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한 말이 교회 안에서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교회에 앞세우지 말아야 하고, 그런 자는 교회의 직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오직 순종의 말, 가치 있는 말, 진실한 말, 해야 할 말만 해야 한다.

〔12-14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미[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인의 한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그레데인의 풍습과 기질은 좋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남을 해치는 악한 자들이며 먹기를 좋아하고 게으름쟁이였다. 좋은 풍습이든지 나쁜 풍습이든지 사회 분위기는 그 사회의 사람들의 기질을 형성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백성이 있는 반면, 신용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백성이 있다. 근면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백성이 있다. 그레데인들은 대체로 거짓되며 악하며 게을렀다. 그레데 교인들도 그런 기질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한다. 아첨은 상대방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책

망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성경은, 훈계를 듣는 것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며 목의 금사슬이라고 말했다(잠 1:8, 9), ‘면책(面責)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하였다(잠 27:5). 우리는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책망하라고 교훈한 목적은 두 가지이었다. 첫째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이었다. 사람이 책망을 통해 잘못을 고치고 바른 신앙 인격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들과,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잘못된 말을 듣는 것은 신앙을 해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책망을 통해 그런 일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15-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음식물에 있어서도 더러운 것이 따로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도 죄와 불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여전히 음식물들 중에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 그들의 생각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다.

저 복종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公言)하지만, 행위로 하나님을 부정했다. 그들은 말과 행위, 신앙고백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 우리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가증한 일이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였더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입

으로는 안다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그를 부인하니,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자들이었다.

또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었다. 신앙의 결과는 선행이다. 물론 선행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의 증거는 아니다. 참된 신앙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선행이 가능해 보인다.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많은 선행을 하였다. 그러나 믿는 세계에서는 선행이 신앙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는 이가 선한 일을 행치 않고 악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가 참으로 믿는자인지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된 신앙은 선행으로 증거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악한 자들을 분별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며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엮드려친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하고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자이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이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분별하자.

둘째로, 우리는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한다.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13절,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우리는 악한 자들의 악행을 분별하고 확증하여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그들이 그런 악한 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해야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의 말을 조심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을 온전케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말을 좇지 말아야 한다. 이단들이 퍼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 진리의 지식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믿음의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헛되고 거짓된 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2장: 바른 교훈에 합한 삶

1-3절, 나이든 자들에 대한 교훈

[1-2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존경할 만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복종치 않는 자들과 대조하여 주는 교훈이다. ‘바른 교훈’이라는 원어(휘기아이누사 디다스칼리아 *ὕγιαίνουσα διδασκάλια*)는 ‘건전한 교훈’이라는 뜻이다(딤후 1:9; 딤후 1:10). 바울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했다(딤후 1:13). ‘바른 말을 본받아’라는 말은 ‘바른 말의 본 혹은 개요’라는 뜻이다. 바른 교훈은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교훈, 곧 성경적 교훈이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규범이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다른 말들, 약간 다른 말들, 비슷하게 다른 말들로 진리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이 성경을 주셨다. 선지자 이사야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원문직역)고 말하였다(사 8:20). 신구약 성경이 기준이며 규범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신 4:2; 12:32; 계 22:18-19).

목사들은 바른 교훈 곧 사도들을 통해 성경에 밝히 증거된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목사들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제멋대로 풀지 말고 바르게 조심스럽게 해석함으로 성경에 정통해야 한다.

바울은 디도에게 당부하기를, 나이든 남자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라고 하였다.

첫째로, 나이든 남자들은 절제해야 한다. ‘절제한다’는 원어(네팔레이오스 *νηφάλειος*)는 일차적으로 ‘[술을] 절제한다’는 뜻이지만, ‘깨어 있다, 맑은 정신으로 있다’는 뜻도 된다. 젊었을 때는 술 취하기도 하고 시간과 돈과 힘을 낭비하기도 했을지라도, 나이든 지금은 맑고 바른 정신으로 절제 있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직도 절제심이 없다면 나잇값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둘째로, 나이든 남자들은 경건해야[존경할 만해야] 한다. ‘경건하다’는 원어(셈노스 *σεμνός*)는 ‘존경할 만하다, 엄숙하다, 품위 있다’는 뜻을 가진다(BDAG, Thayer). 영어성경은 ‘엄숙하다’(KJV, ASV), ‘품위 있다’(NASB), ‘존경할 만하다’(NIV) 등으로 번역했다. ‘품위 있다, 존경할 만하다’고 번역하면 좋을 것이다. 나이든 남자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품위 있고 존경할 만한 인격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나이든 남자들은 근신해야 한다. ‘근신하다’는 원어(소프론 *σώφρων*)는 ‘사려 깊다, 신중하다’는 뜻이다(BDAG). 나이든 자들은 인생의 연륜이 헛되지 않아서 범사에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한다.

넷째로, 나이든 자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한다. ‘온전하다’는 원어(휘기아이논 *ὑγιαίνων*)는 ‘건전하다, 건강하다’는 뜻이다. 믿음도 건전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인내심이 많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것은 인격의 성숙함을 나타낸다. 나이든 남자들은 신앙 인격에 온전함을 나타내어야 한다.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사도 바울은 또 나이든 여자들에게도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로, 나이든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야[경건해야] 한다. ‘거룩하다’는 원어(히에로프레페스 *ἱεροπρεπής*)는 ‘경건하다(reverent), 존경할 만하다(venerable)’는 뜻이라고 한다(BDAG). 나이든 여자들은 그 행실과 처신에 있어서 경건하고 존경할 만해야 한다.

둘째로, 나이든 여자들은 참소치 말아야 한다. 참소하는 것은 남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 잘못된 비난은 오해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남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옳은 비평도 남의 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은 온유함과 조용함에 있다(벧전 3:4).

셋째로, 나이든 여자들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술은 육신의 쾌락을 구하는 것이며 술 취함은 지옥 같 큰 죄악이다.

넷째로, 나이든 여자들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것들, 자신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일 것이다. 경험으로 확인된 성경 지식이 그런 것들이다. 각종 개인적, 사회적 현실 속에서 혹은 가족 관계, 교우 관계 등의 대인 관계에서 얻은 성경 지식, 특히 수많은 실패의 경험에서 얻은 성경 지식이야말로 남에게 가르칠 만한 선한 것들일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면서 나이든 남자들과 나이든 여자들에게 교훈할 바를 말하였다. 우선, 바울은 디도 자신이 성경의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야 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목사는 성경의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야 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

특히 나이든 남자들은 모든 면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품위가 있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며 사려 깊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자,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또 나이든 여자들도 행실과 처신이 경건하고 존경할 만하고 함부로 남을 거짓되이 비난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 아니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이라도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성경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4-8절, 젊은 자들에 대한 교훈

[4-5절]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신중하게]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은 나이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르칠 내용에 관해 몇 가지 말한다. 그것은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이 된다.

첫째로, 젊은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을 돕는 자로 창조된 여자의 본래의 위치를 이해하고 남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둘째로, 젊은 여자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첫 번째 의무이지만, 젊은 여자들은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소홀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젊은 엄마들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육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음식과 의복 등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한다.

셋째로, 젊은 여자들은 근신해야 한다. 본문에 ‘교훈한다’는 원어(소프로니조 σωφρονίζω)도 ‘신중하게 교훈한다’는 뜻이며, ‘근신하다’는 원어(소프론 σωφρων)도 ‘신중하다, 사려 깊다, 자제심이 있다’는 뜻이다(BDAG). 우리는 항상 경박하고 경솔한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 또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말과 행동도 삼가고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이고 편협한 말과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교훈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도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넷째로, 젊은 여자들은 순전해야 한다. ‘순전하다’는 원어(하그노스

ἀγνός)는 ‘순결하다, 정숙하다, 단정하다’(BDAG, Thayer)는 뜻이다. 젊은 여자들은 순결하고 정숙하고 단정해야 한다.

다섯째로, 젊은 여자들은 집안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의도는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자의 첫 번째 역할은 집안 일을 하는 것이다. 시편 128:3은 여자를 ‘내실에 있는 아내’라고 표현한다. 잠언 31:10 이하에 묘사된 현숙한 여인은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자이다(27절).

여섯째로, 젊은 여자들은 선해야 한다. 디도서는 선행에 대하여 많이 강조한다. 1장에서 장로의 자격 요건을 논하면서도 ‘선을 좋아하는 것’을 언급했고, 복종치 않는 자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다. 또 2장에서도 나이든 여자들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절 이후에도 선한 일에 대한 언급이 반복된다(2:7, 10, 14; 3:8, 14). 모든 사람은 선해야 한다.

일곱째로, 젊은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의 의무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아내의 의무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엡 5:22-25).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을 명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면, 아내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6-8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진지함}, 엄숙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이다. 첫째로, 젊은 남자들은 근신해야 한다. ‘근신하다’는 원어(소프로네오 σωφρονέω)는 ‘신중하다,

사려 깊다’는 뜻이다(BDAG). 건전한 생각,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은 바른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다.

둘째로, 젊은 남자들은 선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셋째로, 젊은 남자들은 경건해야 한다. ‘경건함’이라는 원어(셈노테스 σεμνότης)는 ‘품위(dignity), 무게 있음(gravity)’이라는 뜻이다(BDAG, Thayer). 젊은 남자들은 품위와 무게가 있어야 한다.

넷째로, 젊은 남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 ‘바른 말’이라는 원어는 ‘건전한 말, 유익한 말’이라는 뜻이다. 말은 항상 유익해야 하며 남에게 흠 잡힐 것이 없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범사에 그 자신이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을 나타냄으로써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고 말할 것이 없게 하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교훈은 진리이며 그것은 부패치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진리 됨을 증거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순결하고 정숙하고 단정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선한 자가 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젊은 남자들은 건전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며 경박하지 않고 품위가 있고 무게 있어야 하며 또 책망할 것이 없는 건전하고 유익한 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

9-10절, 종들에 대한 교훈

[9-10절]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거슬러]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종들에 대한 교훈이다. 첫째로, 종들은 자기 주인들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 둘째로, 종들은 자기 주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셋째로, 종들은 자기 주인들에게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한다. ‘거슬러 말하다’는 원어(안티레고 ἀντιλεγω)는 ‘말대답을 하다’는 뜻이다. 구원받은 성도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인과 종 간의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다. 이런 교훈은 오늘날 직장생활에 적용된다. 피고용자가 직장에 취직할 때 근무시간과 조건과 봉급 등에 동의했다면, 그는 직장에서의 자기 위치와 고용주와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

넷째로, 종들은 주인의 것을 떼어먹지 말아야 한다. ‘떼어먹는다’는 것은 주인의 돈이나 물건을 떼어먹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것은 도적질이다. 우리는 직장에서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고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지 말고 허락되지 않은 물품이나 비용을 사적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로, 종들은 선한 충성을 다함으로써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한다. 오늘날도 직장에서 아랫사람인 성도는 윗사람이 맡긴 일에 대해 충성스럽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교훈이 빛나게 될 것이다. 진실하고 선하고 충성된 인격과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참됨과 그의 교훈의 참됨을 증거할 것이다.

본문은 종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는가? 종들은 주의 교훈의 영광을 위해 범사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거나 말대답을 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선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피고용인인 성도들이 직장에서 지켜야 할 교훈이다.

11-15절, 구원의 목적—선행

[11-13절] [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하셨음이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즉 각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들 속에 종들까지도 포함된다. ‘양육한다’는 원어(파이데이오 παιδεύω)는 ‘가르친다, 교육한다, 교훈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은 몇 가지의 내용이다.

첫째로, 불경건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불경건과 음란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

둘째로, 근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다. 우리는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고 정당하게 살아야 하며 또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재림을 바라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의 ‘복스러운 소망’이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에 대한 놀라운 증거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요 1:1), ‘참 하나님’(요일 5:20), ‘크신 하나님’(본문)으로 부른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시다. 그것은 그의 영광스런 재림을 가리킨다. 마태복음 24:30,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14절] 그가[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친 백성’이라는 원어(라온 페리우시온 λαὸν περιούσιον)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이다. 출애굽기 19:5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 곧 특별한 백성이다. 그 친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악한 자를 변화시켜 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증표이다. 우리는 항상 그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이어야 한다.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목사들과 설교자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각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이상의 말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기도 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인간적 권위가 아니고,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권위로 말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불경건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사려 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선한 일들에 열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어야 한다.

3장: 선행

1-7절, 선행과 구원

[1-2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훼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 곧 국가 위정자들을 가리킨다. 성도가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속 국가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3:1, 4, 6,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 . .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또 성도들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해야 한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선행은 성도의 필수적 열매이다. 또 성도들은 아무도 훼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한다. ‘훼방하는 것’은 그릇되어 남을 비난하는 것이다. ‘관용하다’는 원어(에피에이케스 ἐπιεικής)는 ‘친절하다, 온유하다’는 뜻이다. 성도는 친절함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한다.

[3절] [이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증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본문은 앞에서 교훈한 성도의 선한 삶의 이유를 보인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이었다. 우리에게는 바른 생각도, 바른 깨달음도

없었으며,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었다. 또 우리는 ‘순종치 아니한 자’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 또 우리는 ‘속은 자’이었다. 우리는 마귀의 말에 속았고, 세상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속았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의 어리석고 혼란한 생각에 속았었다. 또 우리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이었다. 우리는 과거에 육신의 정욕과 쾌락의 종이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세상이 그의 하나님이요 돈과 육신의 정욕과 쾌락이 그의 가치이다. 죄는 이처럼 인간을 어리석고 허무한 데 빠지게 하며 자신을 낭비시키며 멸망하게 한다. 또 우리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이었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다. 이것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든 사람의 상태이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때때로 우리 속에서 머리를 드는 죄악성의 내용들이다. 구원받기 전의 인간 관계는 한마디로 서로 싸우는 질투와 미움과 악독으로 얼룩져 있었다.

[4-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자비’라는 원어는 ‘선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뜻을 가진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은 예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타났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을 때 각자에게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하시되’라는 원어(에소센 ἔσωσεν)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되’라는 뜻으로 과거시제이다.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으므로 그

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정죄(定罪)함이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셨다. 실상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누더기 옷에 불과하였다. 이사야 64:6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라고 말하였고, 또 예레미야 17:9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력해져 있다. 성경과 인류 역사와 우리의 경험이 이것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원은 그의 긍휼의 결과이었다. 하나님의 긍휼, 그의 은혜, 그의 선하심과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원인이요 원천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중생(重生)은 다시 낚을 말하며 그것은 죄씻음으로 이루어졌다.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었었기 때문에 죄씻음을 통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죄씻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을 때 우리가 중생케 되었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동일한 구원 사건이다. 구원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6-7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결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가 이루신 의(義)에 근거하여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조금 오셨거나 손가락만 내미신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부어지셨다. 성령께서는 은

혜와 진리가 풍성하시며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주시는 영이시다.

성령께서 풍성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이와 같이, 구원은 사죄와 칭의(稱義)이며 이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또 구원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다. 죄는 죽음이요 의(義)는 생명이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에 근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나 그것을 영광스럽게 누림은 아직 미래에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광스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남을 그릇되이 비난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성도가 선한 인격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리석고 반항적이며 악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미워했던 가증한 죄인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이며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구원이다. 천국은 의와 평안이 가득한 나라이다. 거기에는 죄와 눈물이나 근심과 싸움이 없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헛된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세사적인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다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성경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의 교훈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8-15절, 선한 일에 힘쓰라

[8절] 이 말이 미쁘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확신 있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선행에 대한 교훈과 그 이유에 관한 말씀이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는 뜻이다. 구원하심, 곧 무지와 불순종과 행악과 미움의 상태에서 건져내심과,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과, 이 땅 위에서의 선한 삶에 관한 말씀들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들이다.

그러므로 디도는 이것들, 즉 방금 말한 교훈 곧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의의 삶, 선한 삶을 살라는 성경적 교훈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야 했다. ‘굳세게 말한다’는 원어(베바이오오 διαβεβαιόομαι)는 ‘확신 있게 말한다, 강하게 주장한다’는 뜻이다(BDAG). 하나님의 믿을 만한 이 진리의 말씀들을 확신 있게 말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었다. 교훈의 목표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목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조심하여’라는 말은 성도가 조심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악에 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인가? 디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선하다’는 원어(아가도스 αγαθός, 칼로스 καλός)는 ‘선하다, 유익하다,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선한 일들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성도가 힘써야 할 선한 일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의 각 방면에 많이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표는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다. 성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속이지 말고 뇌

물을 받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확신 있게 말해야 할 말이 있는 반면,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할 주제도 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등이 그것이다. 그런 것들은 ‘피해야’ 한다. 그것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들이다. 물론, 논쟁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필요한 논쟁도 있다. 바른 교리를 규명하고 확증하는 교리적 논쟁은 필요하다. 그것은 선한 논쟁이다. 오늘날처럼 자유주의 신학과 연합운동과 신복음주의와 은사주의가 교회들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때에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타협주의와 싸우고 은사주의에 대한 경계를 주장하는 것은 필요한 싸움이다.

[10-11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거절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자책하면서도]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이라는 원어(하이레티코스 αἵρετικός)는 ‘당파적인, 이단적인’이라는 뜻이다. 실상, 교회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이다. 그러나 오류들이 교회에 침입해 들어왔다.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지지자들을 얻었고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며 사람들의 무지와 연약이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무리와 당파가 생겼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라는 말은 이단과 당파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때 거기에 빠진 자가 돌이키면 문제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사상이나 행위에 있어서 실수와 부족이 있을 수 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잘못과 부족을 깨달을 때 거기서 돌이키는 자는 깨끗함을 받는다. 그러나 한두 번 훈계한 후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단자와 당파적 인물은 성도가 멀리해야 할 자이

다. ‘멀리하다’는 원어(파라이테오마이 παραιτέομαι)는 ‘받아들이지 않다, 거절하다, 피하다’라는 뜻이다. 이단과 오류를 버리지 않는 자들과 계속 교제하는 것은 그 악을 인정하는 것이든지 그 악에 몰드는 일이다. 이 경우, 성도 개인과 교회 회중의 순결을 위해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멀리하는 것은 소극주의가 아니다. 이단자들이나 오류에 빠진 자들과 멀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른 방법이다.

‘네가 아는 바와 같이’라는 원어는 ‘이러한 사람이 ...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라’라고 번역해야 한다(NIV). ‘부패하다’는 원어(에크스트레포 ἐκστρέφω)는 ‘심히 비뚤어지다’라는 뜻이다.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라는 원어(온 아우토카타크리토스 ὢν αὐτοκατάκριτος)는 ‘스스로를 정죄하면서도, 자책하면서도’라는 뜻이다. 한두 번 훈계해도 고치지 않는 이단자들은 심히 비뚤어져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이다. 그들은 강박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무지해서, 실수로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완악한 심령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다. 민수기 15:30는 이런 자를 ‘짐짓 악을 행하는’ 자로 묘사하였고, 히브리서 10:25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것으로 묘사했고, 요한일서 5:16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훼방하는 죄’와 같다고 본다. 바로 이단들은 이와 같이 성경 진리와 교훈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고의적으로, 심히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

[12-14절] 내가 아데미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過冬)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바울에게는 아데미와 두기고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또 그는 디도가 속히 오기를 원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니고볼리에 있고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걱정하고 있다. 니고볼리는 아가야 지방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이었다. ‘교법사’라는 원어(노미코스 νομικός)는 ‘율법사, 법률가’라는 뜻이다. 세나는 율법을 연구한 자이었던 것 같다. 아마, 세나와 아볼로는 다 성경에 능통한 교사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경비가 다 떨어졌던 것 같다. 바울은 지금 그들로 궁핍함이 없도록 속히 보내라고 디도에게 부탁한다.

바울은 교인들이 선행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기를 원하였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해졌다. 그러므로 선을 행해야 할 줄은 알지만, 선을 행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또 행할 능력도 부족하다. 마치 갓난아이가 홀로 서거나 걷기가 힘든 것과 같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선행을 배움으로 선행을 힘쓸 수 있다. 선행은 신앙의 열매이다. 선행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는 자이지만, 선행이 많은 자는 열매가 많은 자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구원은 좋은 생명, 새 생명의 씨이다. 이제 이 좋은 새 생명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 기대된다.

무엇이 선행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선행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이다. 이 전도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자를 세우고 훈련시키고 후원하는 것은 가장 귀한 선행이다. 전도에 힘쓸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가감 없이 전파하고 오늘 시대의 배교적 풍조와 타협치 않고 충성되어 일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교회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한다. 그것은 진실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좋은 열매들이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¹⁴⁾

성도들의 상호 문안은 아름다운 일이다. 바울과 함께한 자들은 그와 함께 디도에게 문안하였다. 바울은 또 디도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한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다.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받은 사도의 직분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 때문에 성도들은 그를 사랑했다. 오늘날에도 진실한 성도들은 진실한 전도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 구원의 목표는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하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도는 모든 성도가 행해야 할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선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세를 바르게 이해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허무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전도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이단과 교리적, 윤리적 오류를 회개치 않고 고집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거절해야 한다. 그것은 교회의 순결성 때문이다. 교회는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단과 교리적, 윤리적 오류에 빠진 자들과의 계속적 교제는 개인과 교회를 부패시키는 요인이다. 이단자나 오류에 빠진 자를 한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고 교제를 끊는 것은 결코 소극주의적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유일한 바른 방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과 교회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권징을 성실히 시행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서서히 해이해지고 부패해질 것이다.

14) Byz ✕ C vg syr^p cop^{bo} arm^{ms} 등에 있음.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합정동교회 담임목사.

[역서] J. 그레섬 메이친, 신약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조직신학,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기독교신앙입문, 천주교회비평 등.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강해

2000년 8월 13일 1판

2021년 11월 28일 1판-수정중

저 자 김 호 성

발 행 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9874

oldfaith@oldfaith.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ISBN 978-89-98821- - 03230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1.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6판]. 204쪽. 4,000원.
2.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2판]. 170쪽. 6,000원.
3. 김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158쪽. 6,000원.
4. 김효성, **복음주의 비평**. 193쪽. 6,000원.
5.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 3,000원.
6. 김효성, **이단종파들**. [6판]. 70쪽. 700원.
7.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6판]. 44쪽. 2,000원.
8. 김효성, **조직신학**. [2판]. 627쪽. 6,000원.
9.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10판]. 96쪽. 2,500원.
10. 김효성, **기독교 윤리**. [6판]. 240쪽. 4,500원.
11. 김효성,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4,000원.
12.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10판]. 34쪽. 600원.
13.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판]. 108쪽. 3,000원.
14. 김효성, **창세기 강해**. [3판]. 359쪽. 6,000원.
15.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2판]. 204쪽. 4,000원.
16. 김효성, **레위기 강해**. [3판]. 164쪽. 4,000원.
17. 김효성, **민수기 강해**. [2판]. 182쪽. 4,000원.
18. 김효성, **신명기 강해**. [2판]. 184쪽. 4,000원.
19. 김효성,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강해**. [3판]. 216쪽. 4,000원.
20.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2판]. 233쪽. 4,000원.
21. 김효성, **열왕기 강해**. [2판]. 217쪽. 4,000원.
22. 김효성, **역대기 강해**. [2판]. 256쪽. 5,000원.
23. 김효성,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2판]. 129쪽. 3,000원.
24. 김효성, **욥기 강해**. [2판]. 195쪽. 4,000원.
25. 김효성, **시편 강해**. [2판]. 704쪽. 10,000원.
26. 김효성, **잠언 강해**. [2판]. 624쪽. 8,000원.
27. 김효성, **전도서 강해**. [3판]. 84쪽. 3,000원.
28. 김효성, **아가서 강해**. [3판]. 88쪽. 3,000원.
29. 김효성, **이사야 강해**. [2판]. 398쪽. 6,000원.
30. 김효성, **예레미야 및 애가 강해**. [2판]. 359쪽. 6,000원.
31. 김효성, **에스겔 다니엘 강해**. [2판]. 293쪽. 6,000원.
32. 김효성, **소선지서 강해**. [2판]. 318쪽. 6,000원.
33.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2판]. 340쪽. 6,000원.
34.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3판]. 223쪽. 5,000원.
35. 김효성, **누가복음 강해**. [2판]. 373쪽. 6,000원.
36.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3판]. 281쪽. 5,000원.
37.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3판]. 236쪽. 4,000원.
38. 김효성, **로마서 강해**. [3판]. 145쪽. 4,000원.
39. 김효성, **고린도전서 강해**. [2판]. 122쪽. 3,000원.
40. 김효성, **고린도후서 강해**. [2판]. 100쪽. 3,000원.
41. 김효성,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 4,000원.
42. 김효성,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2판]. 143쪽. 4,000원.
43. 김효성, **히브리서 강해**. [2판]. 109쪽. 3,000원.
44. 김효성,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강해**. [2판]. 145쪽. 4,000원.
45. 김효성, **요한 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3,000원.
46. 김효성, **요한계시록 강해**. [2판]. 173쪽. 4,000원.

☆ 주문: 전화 02-334-8291, 이메일 oldfaith@hjdk.net

☆ 계좌: 우리은행 1005-604-140217 합정동교회